

세종

2020년 문집 제34호





토끼반



담임교사 박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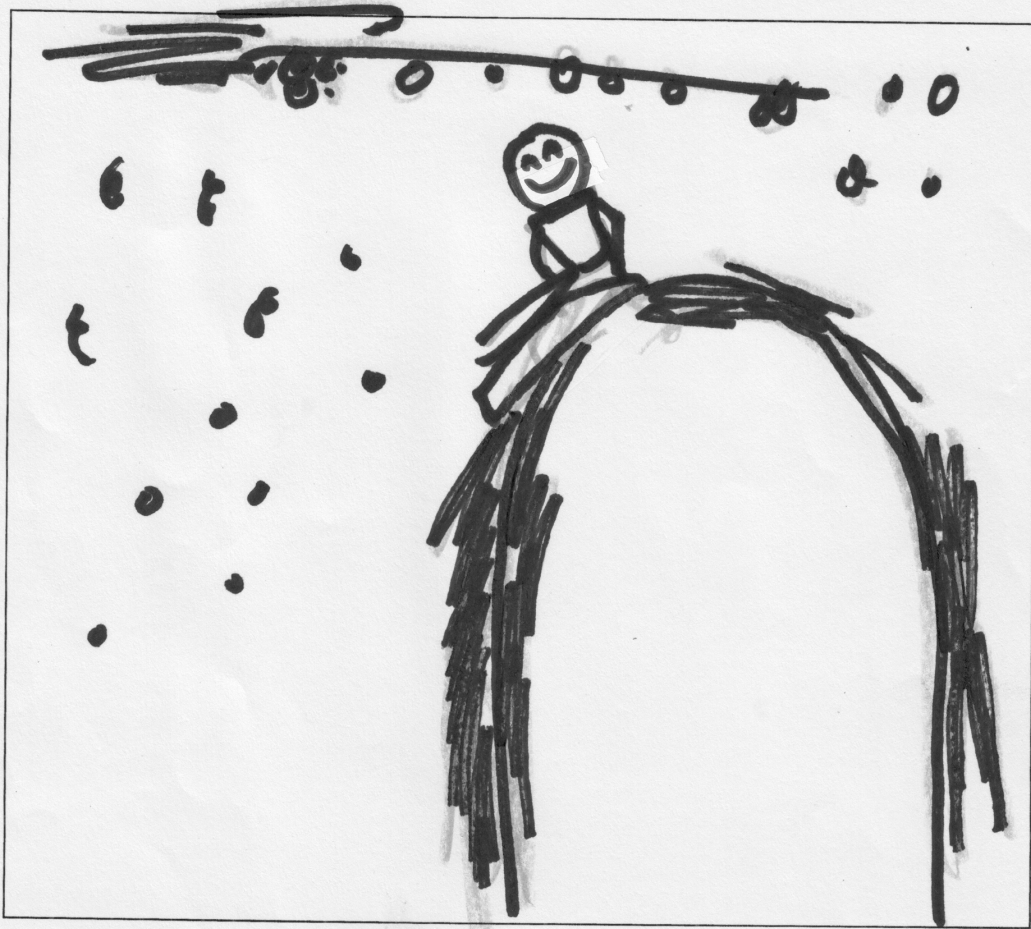
노현선 김지민 장서원 최혜서 구연우 곽시울 박민영 장유나 표현진 안정후
유나렉터 김성협 김수연 이민채 이민서 원시우 박태양 (2학기신입생/서민솔,홍해나)



곽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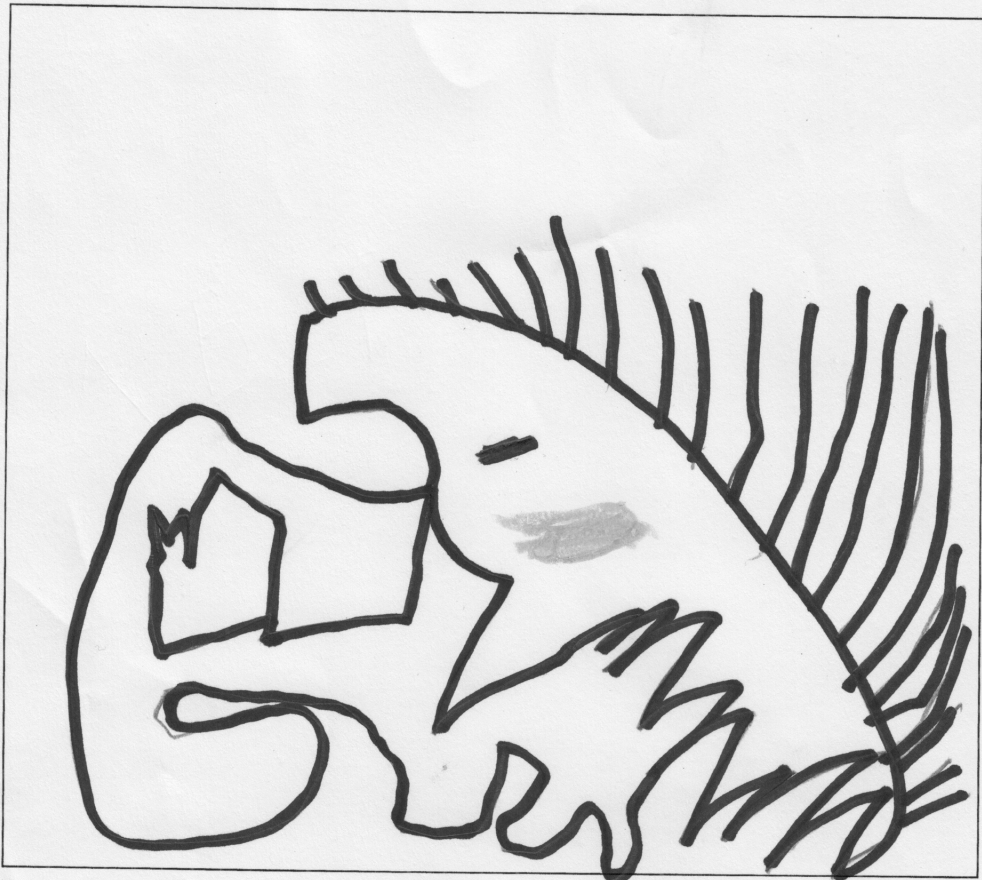
세종대학교 토끼반 이름 **곽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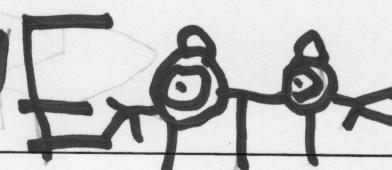


달과 별을 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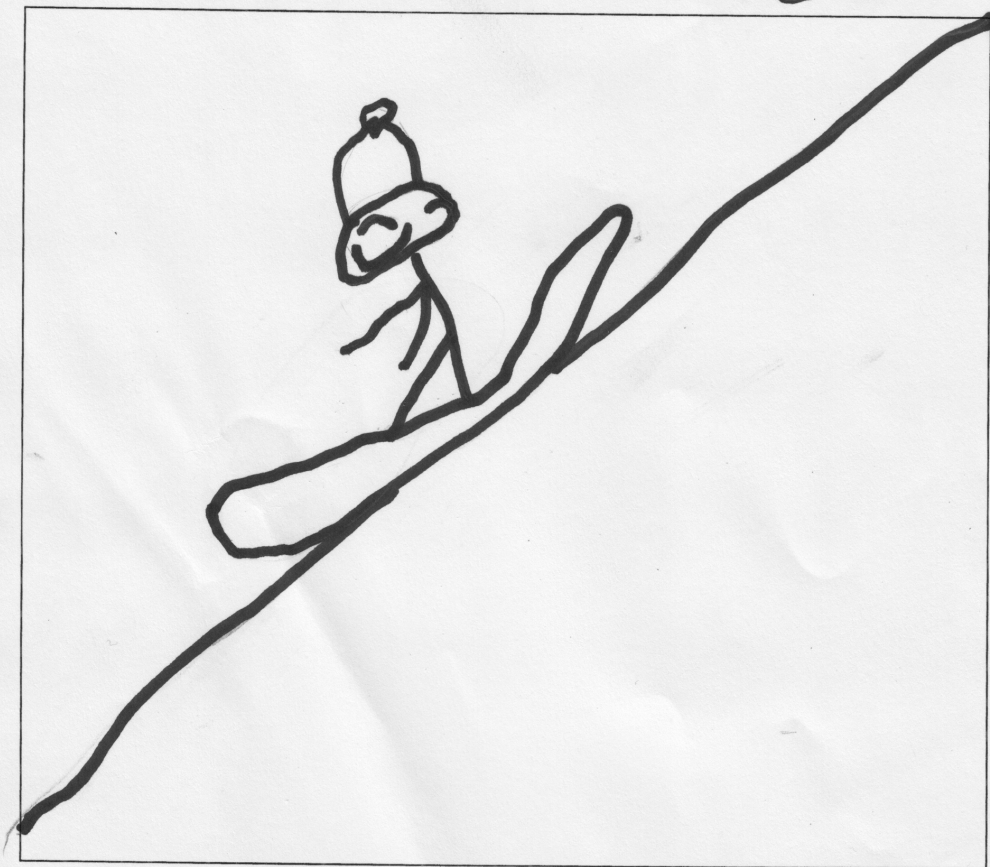
세종대학교 토끼반 이름 F 연우



BTGWAVE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김성협



설매를 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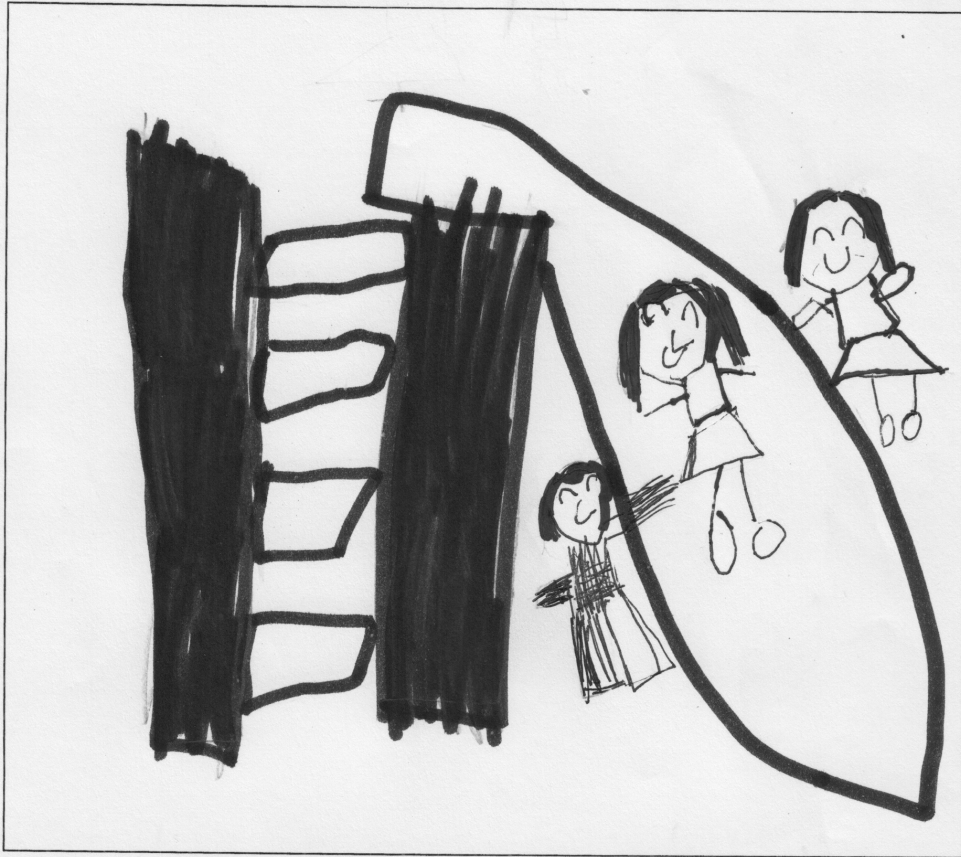


김수연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김수연



나는 엄마아빠랑

같이 놀아요



김지민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김지민



아이스크림집



노현선



세종대학교 토끼반 이름

노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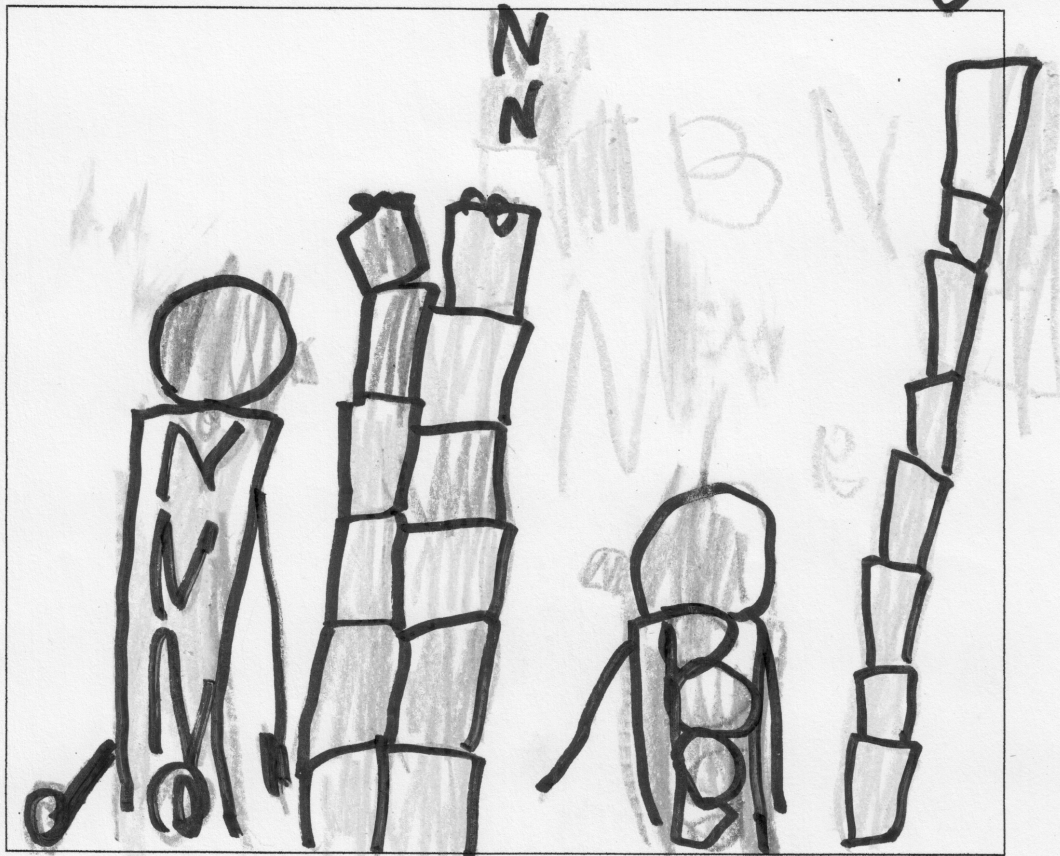
박민영



세종대학교 토끼반

이름

박민영



블럭놀이



박태양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박태양**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었어요



서민슬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서민슬



나는 민서, 민채, 시후와

함께 놀았습니다.



유나 렉터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유나 렉터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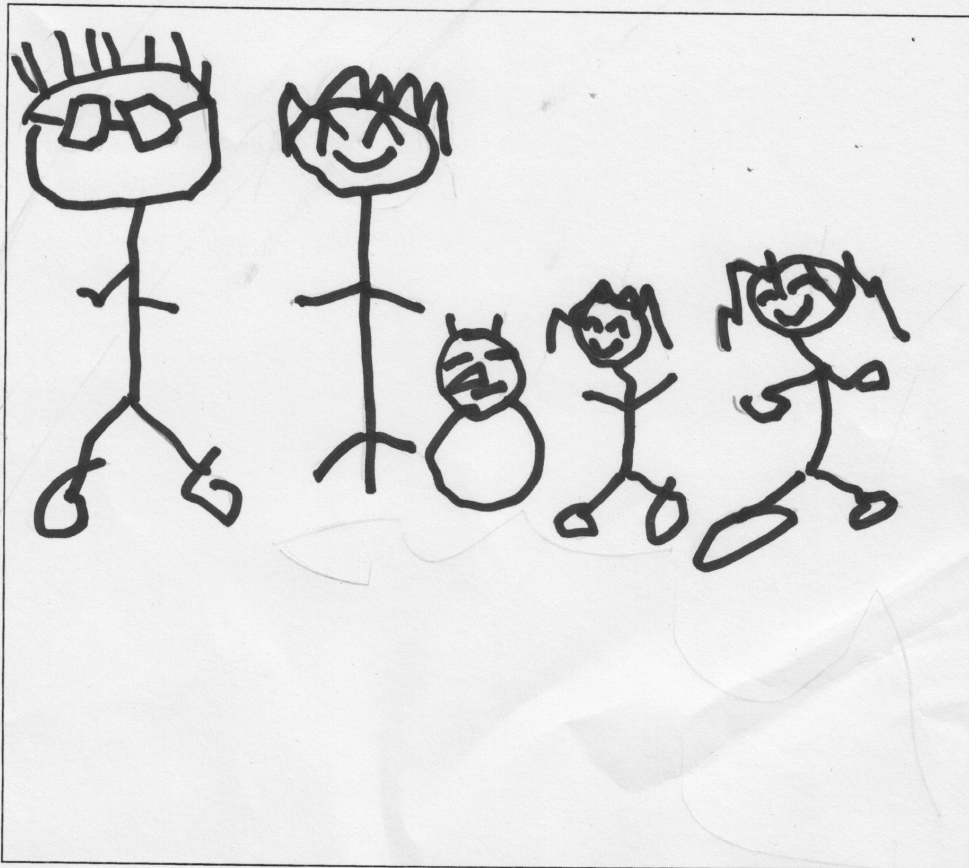
유나 렉터



이 민 서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이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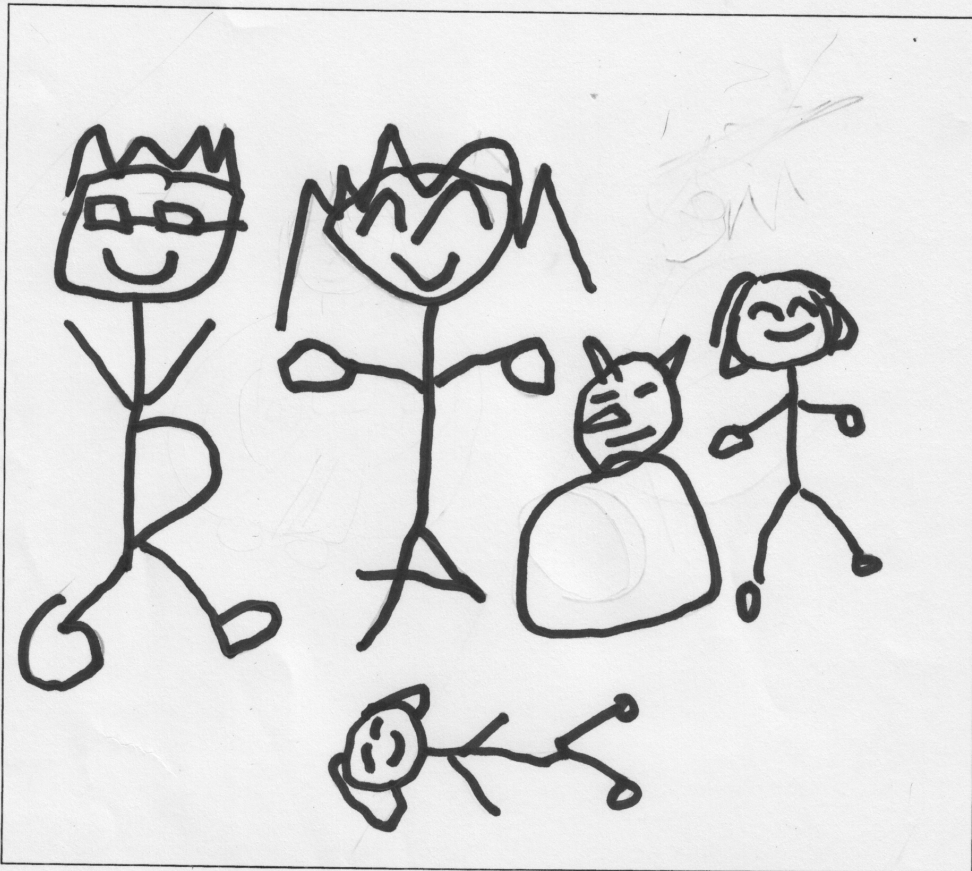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민채



세종대학교 토끼반 이름 이민채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장서원



세종대학교 토끼반 이름 장서원



엄마 아버랑 여행 을가서

산나기 놀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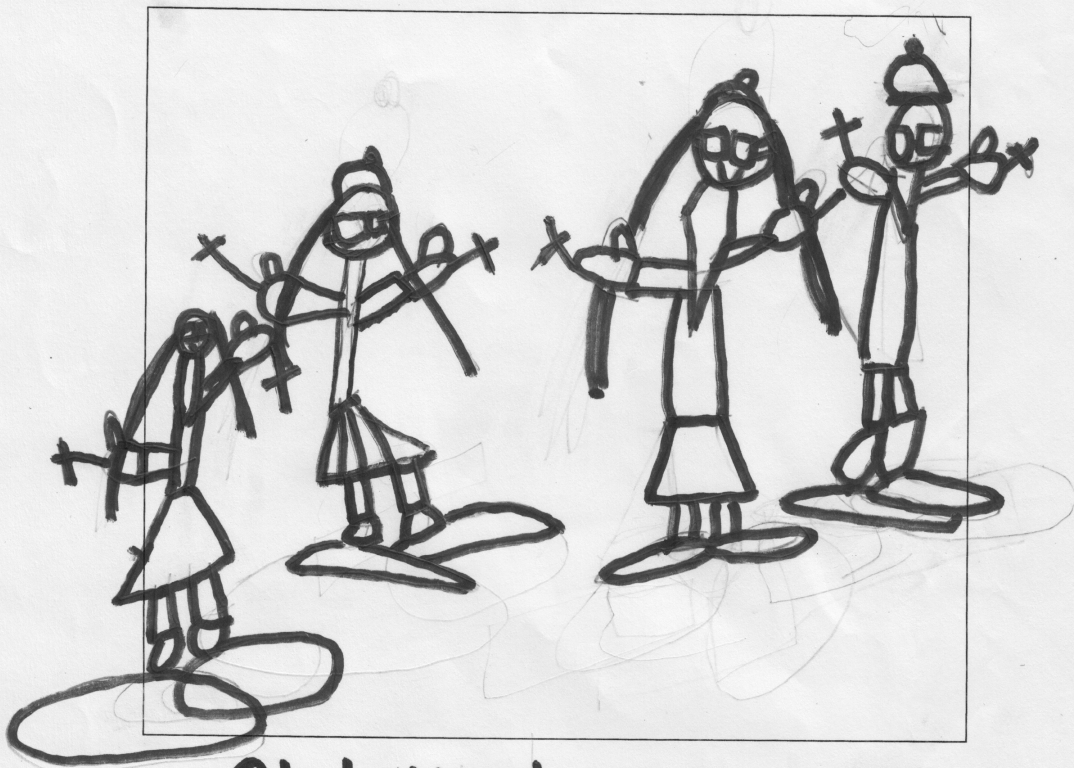
그리고 나는 모래 쌓기
하곤 있어요



최혜서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최혜서



아빠바라님엄마랑
언니랑스키를
타고어요.



세종대학교 토끼반 이름 표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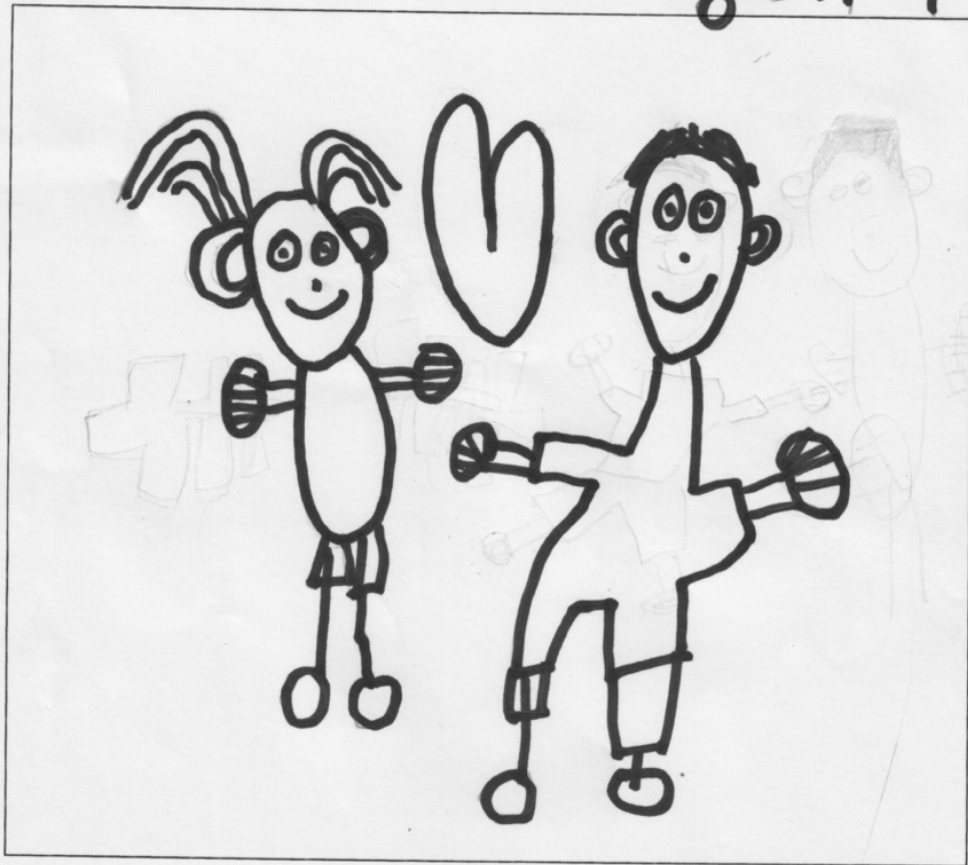
노산



홍해나



세종대학교 토끼반 이름 **홍해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하고 놀고 싶어요.



나비반

담임 교사 김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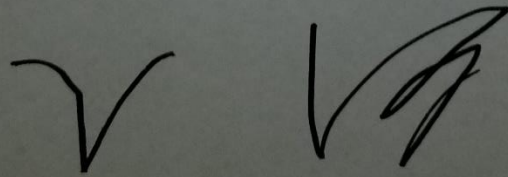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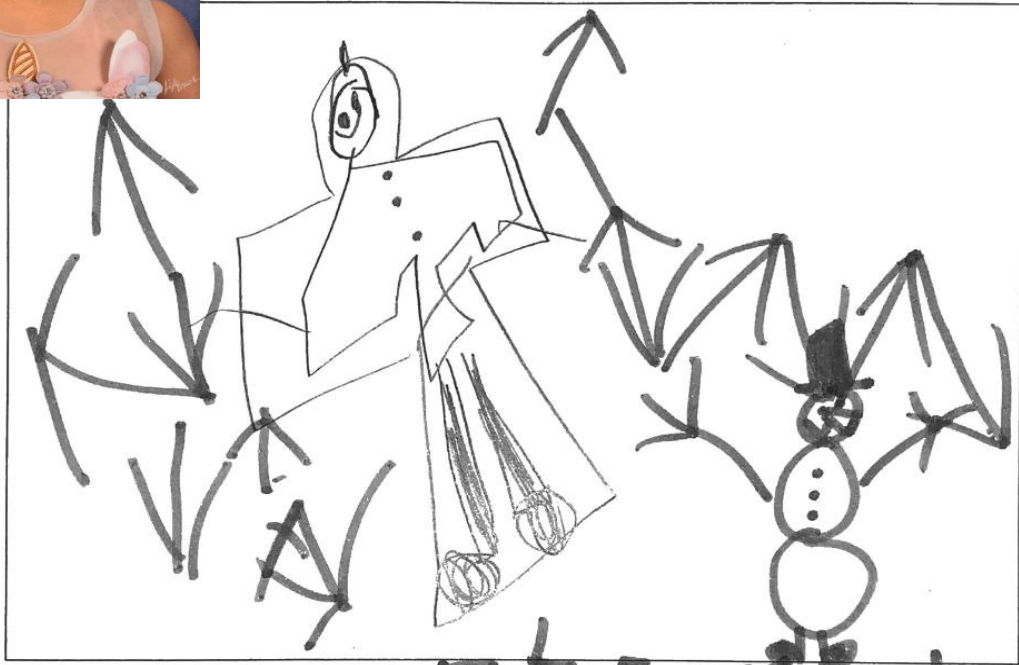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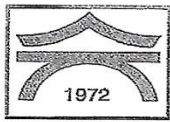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김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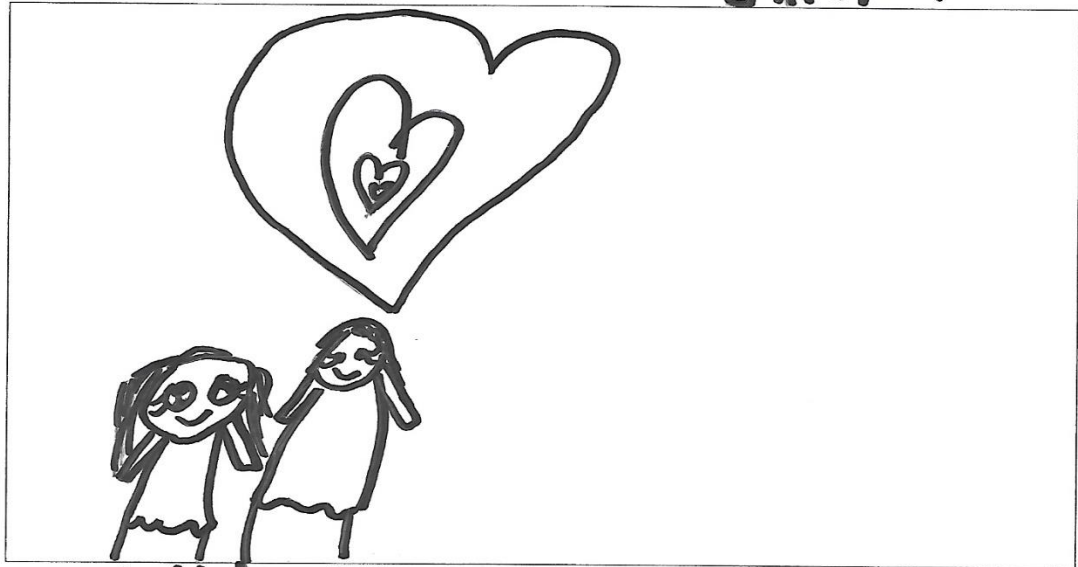


눈사람이 많이 있어요
눈사람이 많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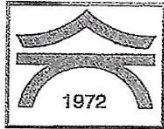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김지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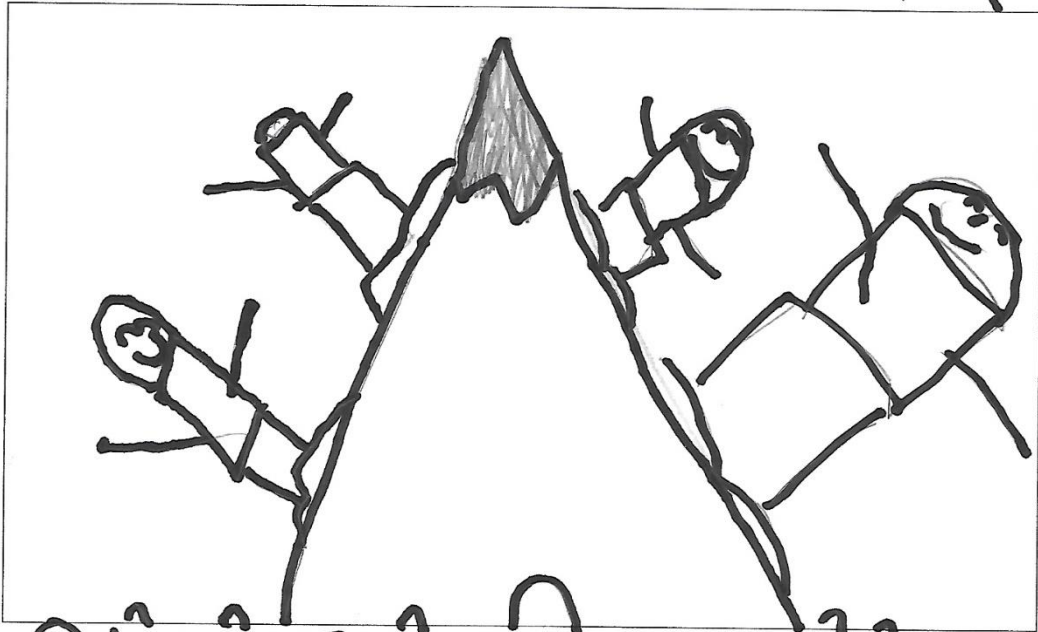
선생님 사랑합니다
보고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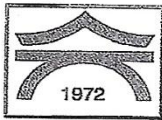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김지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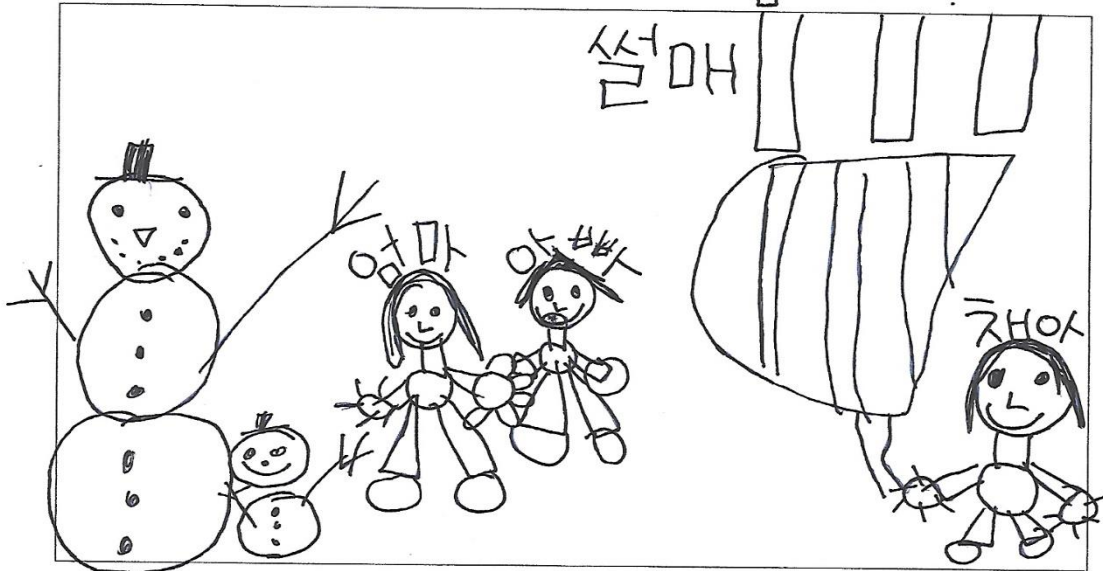


아빠랑 엄마랑 내 동생,
나 같이 스키 갔어요.



세종학교 나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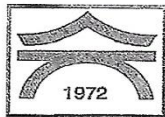
이름 김채아



엄마 ♡ 아빠 ♡ 채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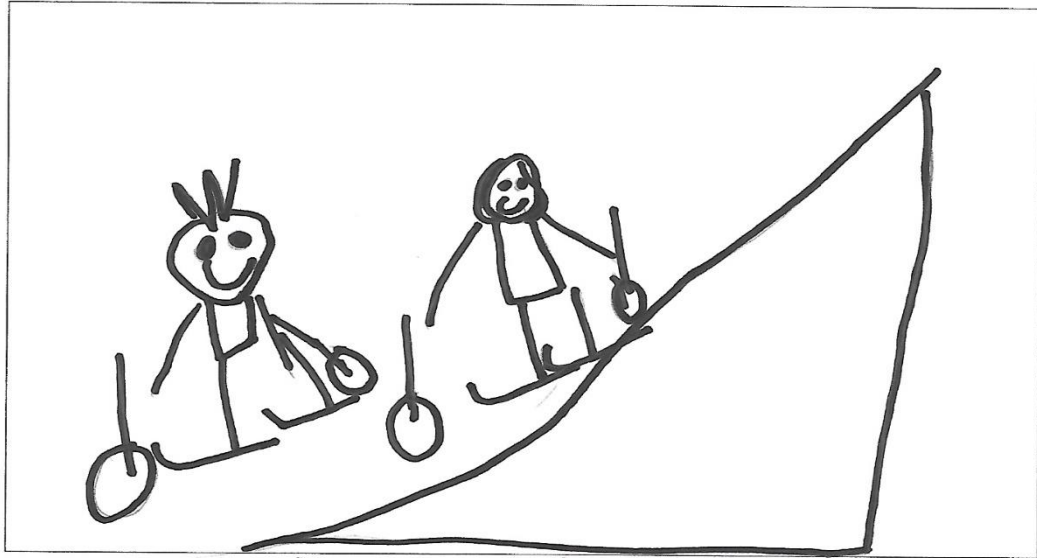
눈사람 만들었어요 ♡

설매도 탔어요 ♡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지호



엄마와 형님끼리
스키를 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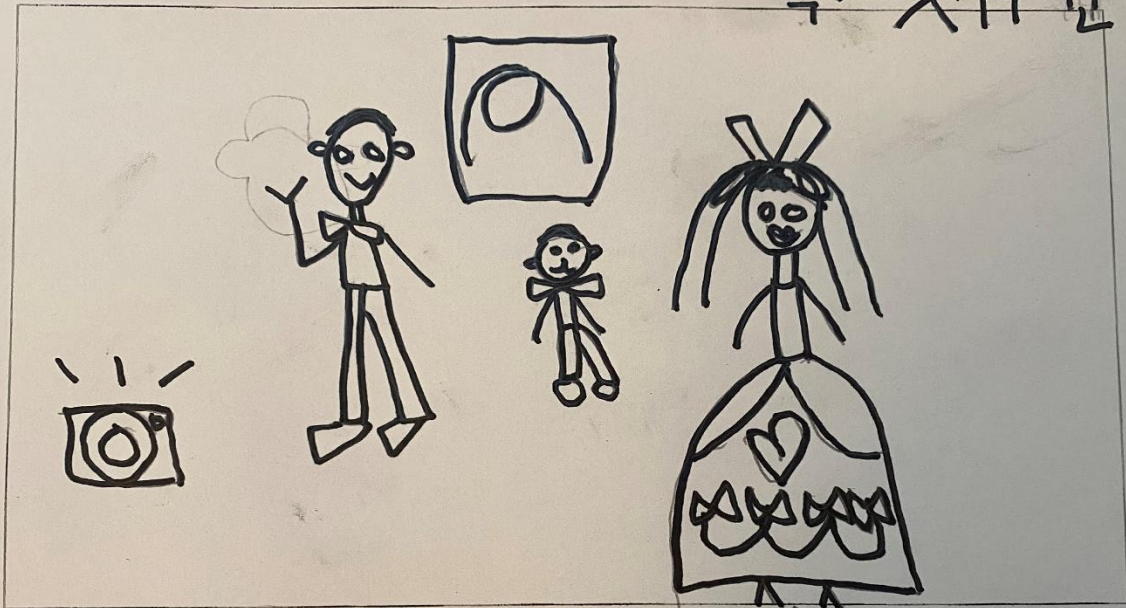


세종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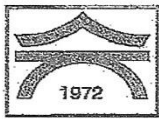
나비반

이름

박수현



□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세종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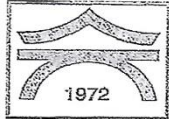
나비반

이름

주지도



나비반 주지도
주지도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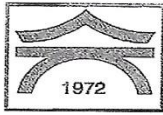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신여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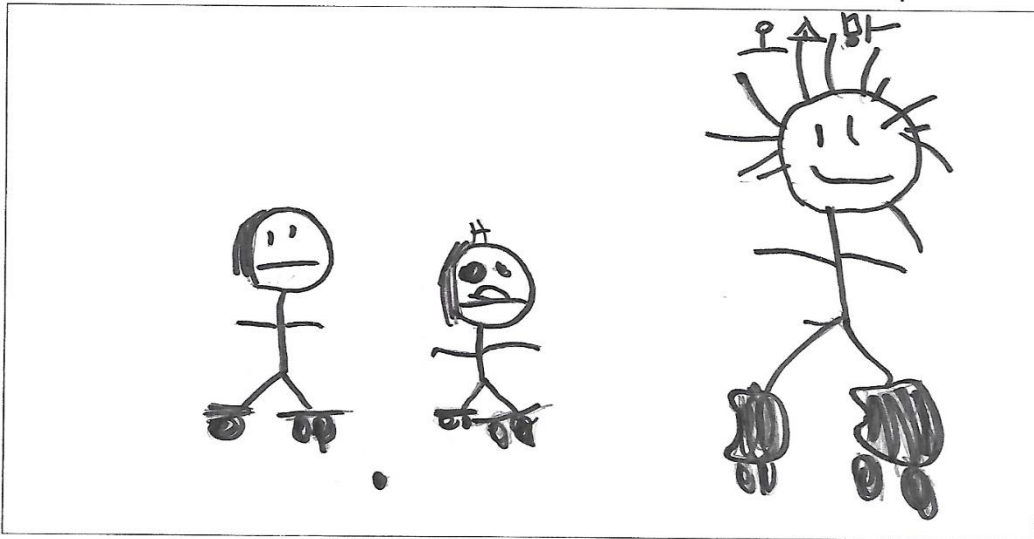


놀이시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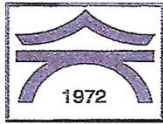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오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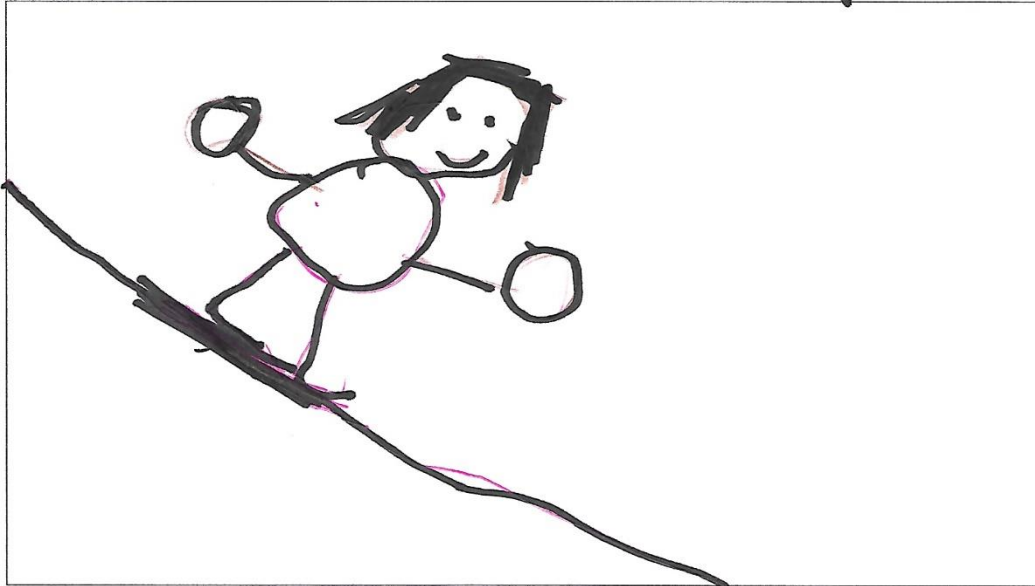
가즈 이라 롤러스케이팅
했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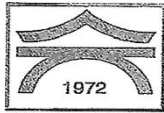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이/다/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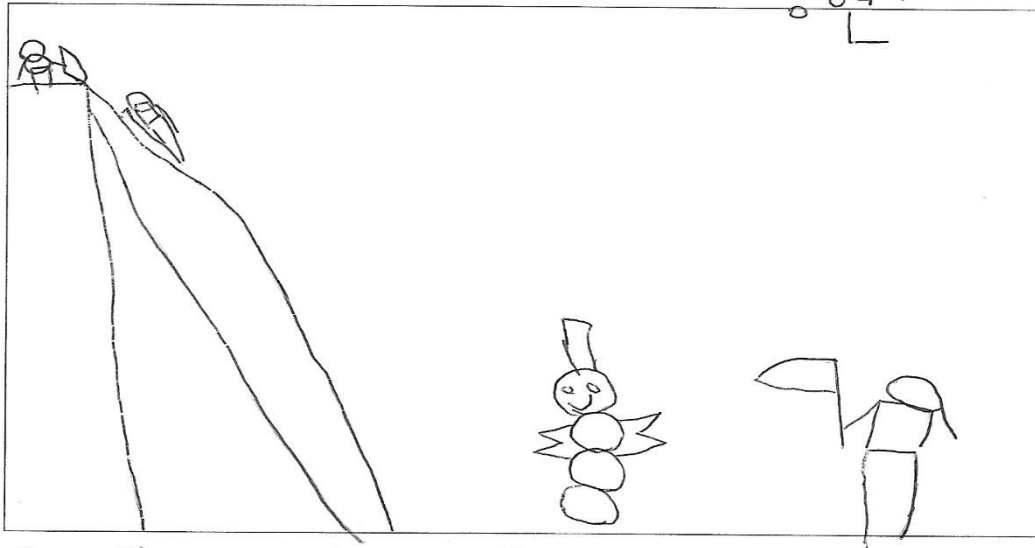


내가 스키를 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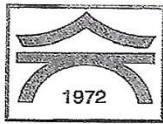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이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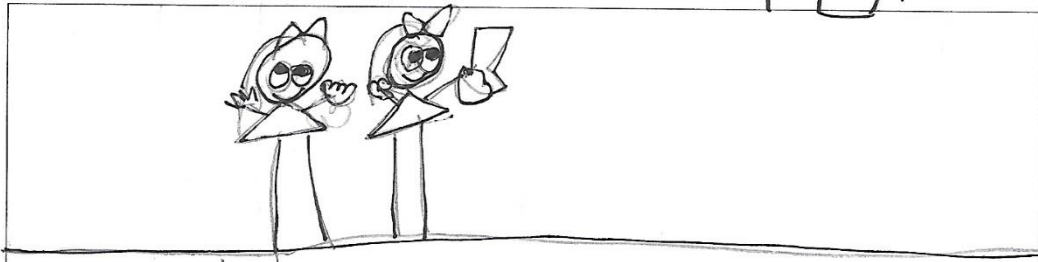


아빠, 친구와 함께
찾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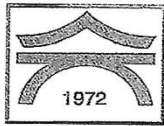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이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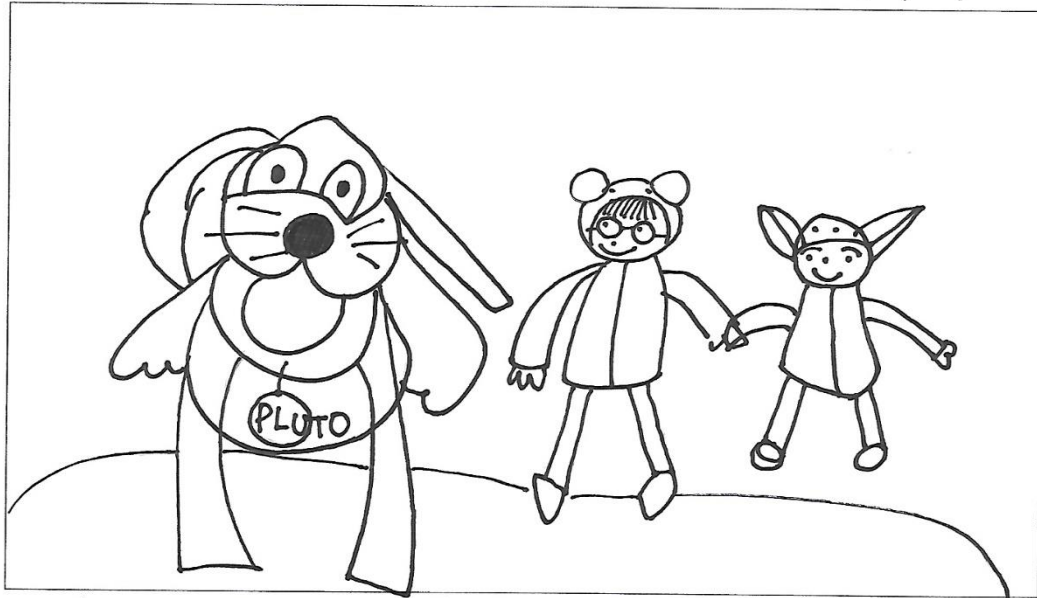


수연이랑 재아랑 윤희랑
탄지기가 놀이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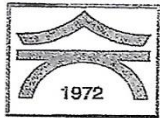


세종대학교 나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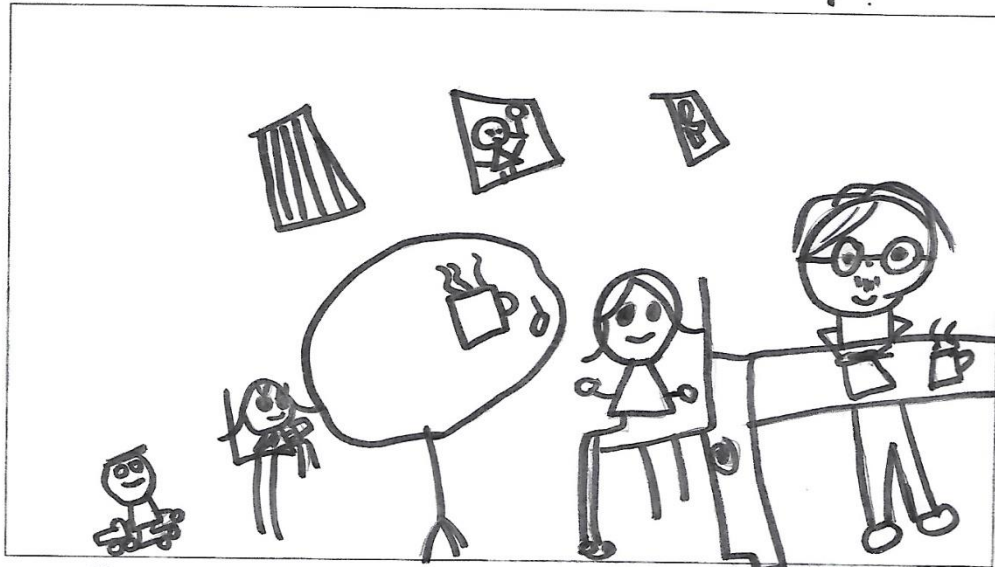
이름 최성우



디즈니월드에서 플루토랑
놀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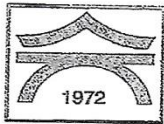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최이나



우디 가 주은 코코아를

좋아해요 ㅇㅇㅇㅇ

사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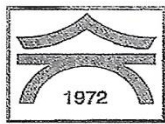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한유주



크리스마스에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를했어요



세종학교

나바반

이름

한이수



디자인이름 드어기 갔어요.
가장 좋아하는 색을 봤어요,
가장 좋아하는 색을 봤어요.

개나리반

담임 교사 박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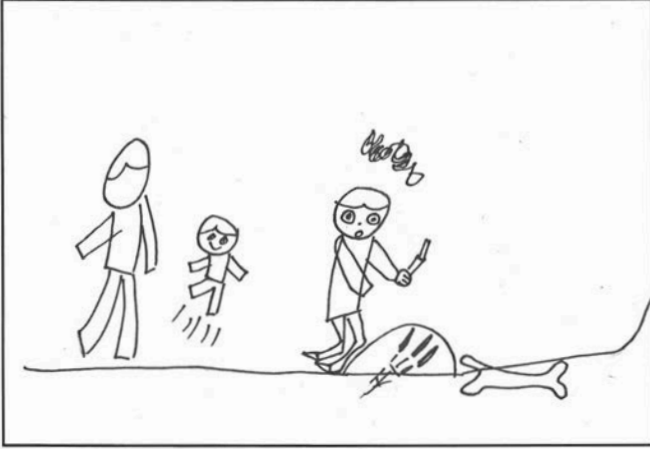


**위 사진은 1학기 사진입니다.



개나리반

이름: 구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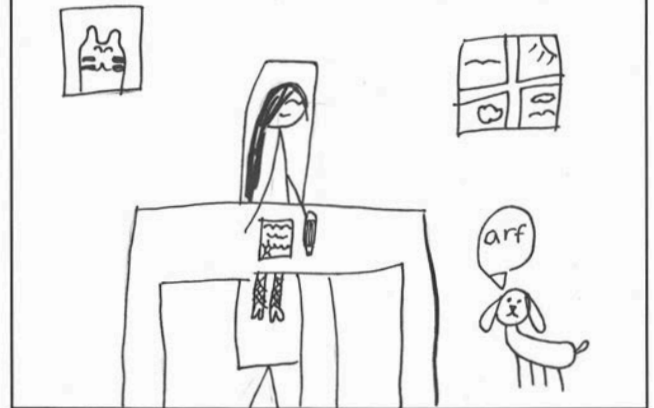


나는 커서 고생물학자가 되고
싶어요. 화석을 연구해서
고생물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요



개나리반

이름: 김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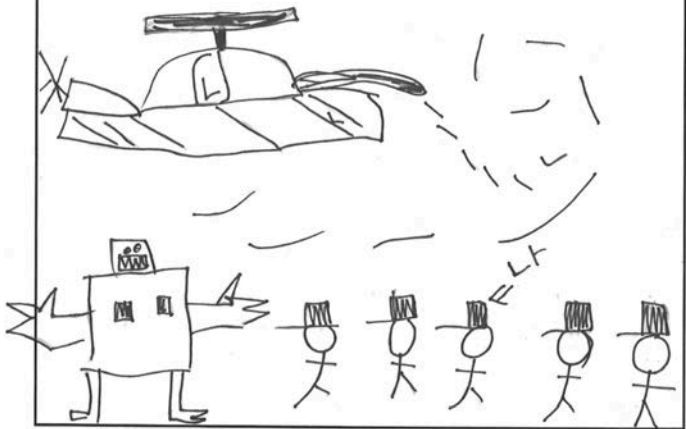
나는 커서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예술가가 되어서
예쁘고 멋진 그림을
많이 그리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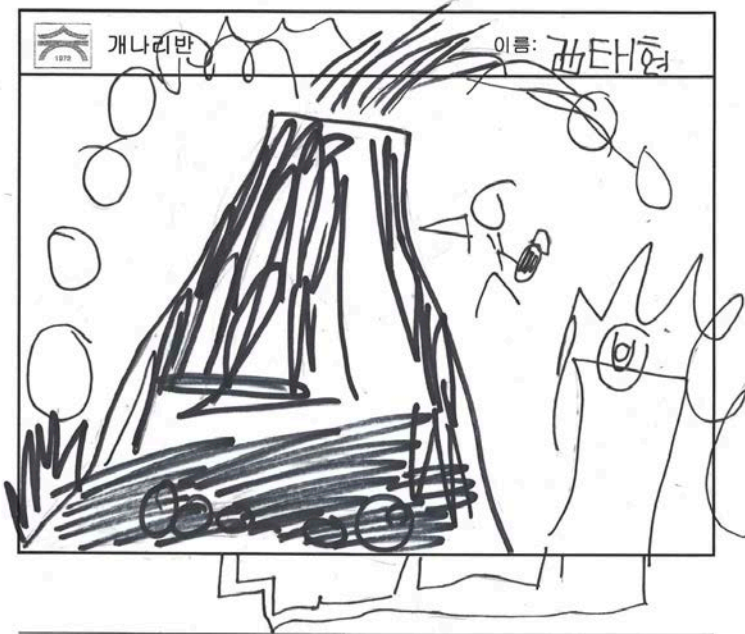
나는 커서 선생님과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거예요,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도 해 줄
 거예요

개나리반 이름: 김영제



내가 큰면구닌도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멋진
 구빈은 잘싸워요. 재밌어요.





나는 커서 ^남 남극에 바사가 되고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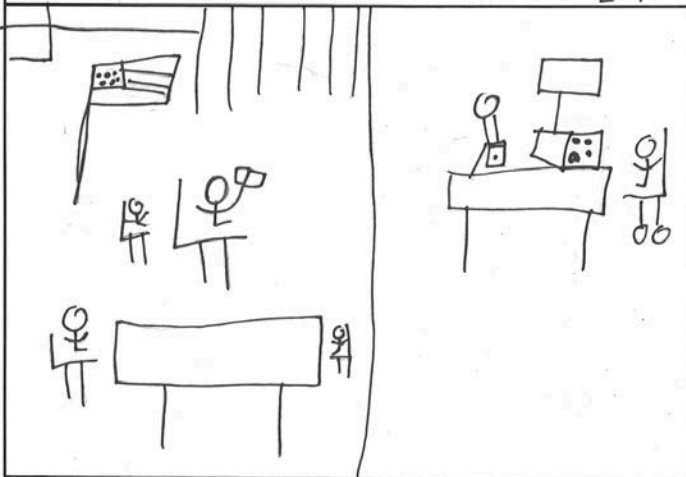
남극에는 온 연구하는 곳 많고 재미있을 거
같아요.



나는 자라서 아바바처럼
잘 놀아주는 자상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나는 커서 가수가
되고 싶어요.
왜냐 하면 노래 하는
것을 좋아하고 스피너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싶어요.



나는 커서 판사와 생물을
학자가 되고 싶어요.
판사가 되어서 좋은 판결
을 내리고 싶어요.





저는 유투버가 되고 싶어요.
재미있는 것을 많이 보여 주고
싶어요.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미있어서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
들 수 있어요. 나는 음식을 잘 만
드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과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도록
도와 줄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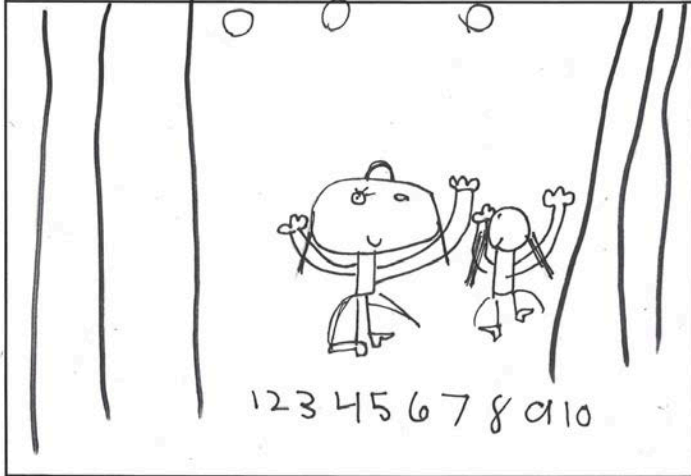
나는 커서 우주비행
사가 되고 싶습나다
별을 다보고 싶습나다
엄마한테 선물 거에
요.





개나리반

이름: 이요경



나는 커서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발레리나가 되어서

머지 공연을 할 거예요.



개나리반

이름: 전레오



나는 커서 경비원이

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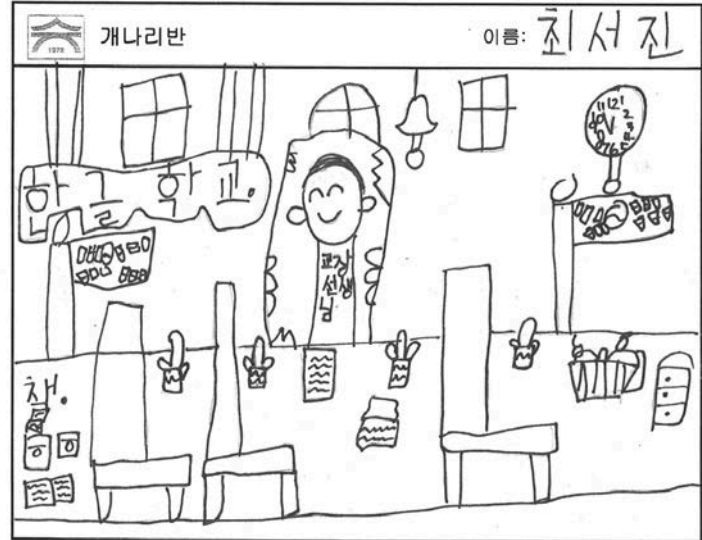
CCTV를 많이 볼 수 있어서요





이름: 정철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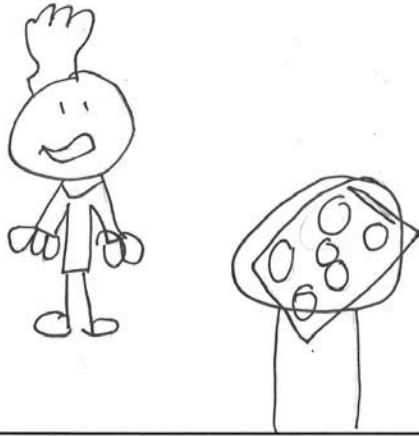
나 는 의 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면 친구가 아프다
 도와 주고 싶어요.



이름: 최서진

나 는 한글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칠 거예요.





나는 요리사 가 되고
 싶어요. 마늘 음식과
 사람들 에게 만 들어
 주려고요.



God is Love



나 는 커서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도와 주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수 있어요.



< 매 화 반 >

담임 교사 이윤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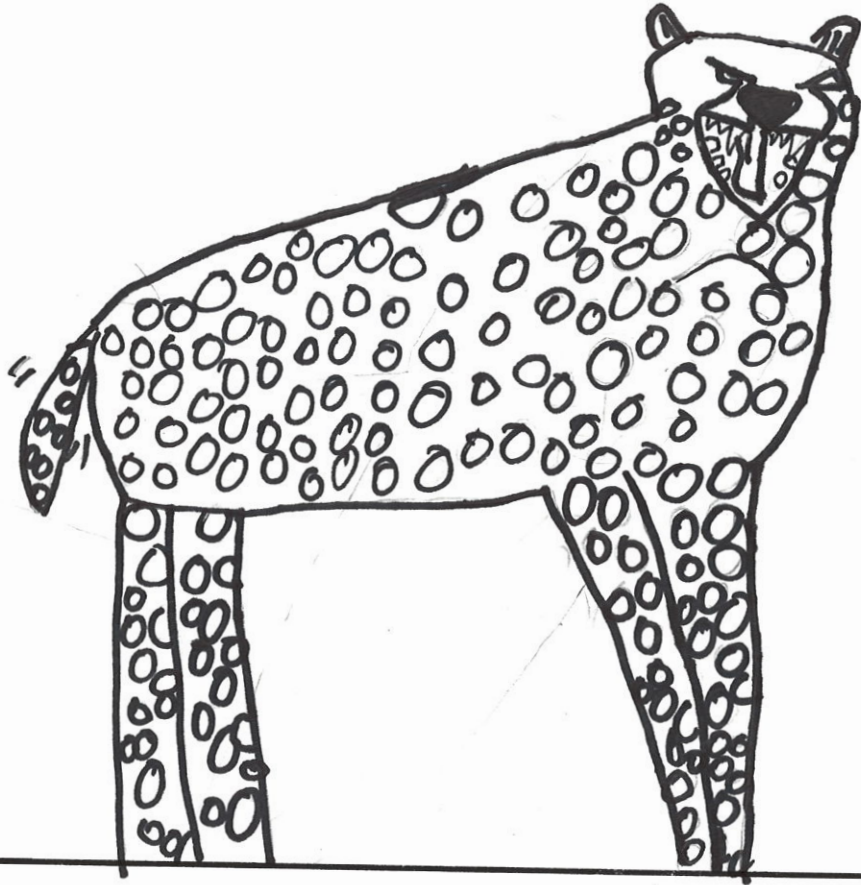
>





매화반

이름: 김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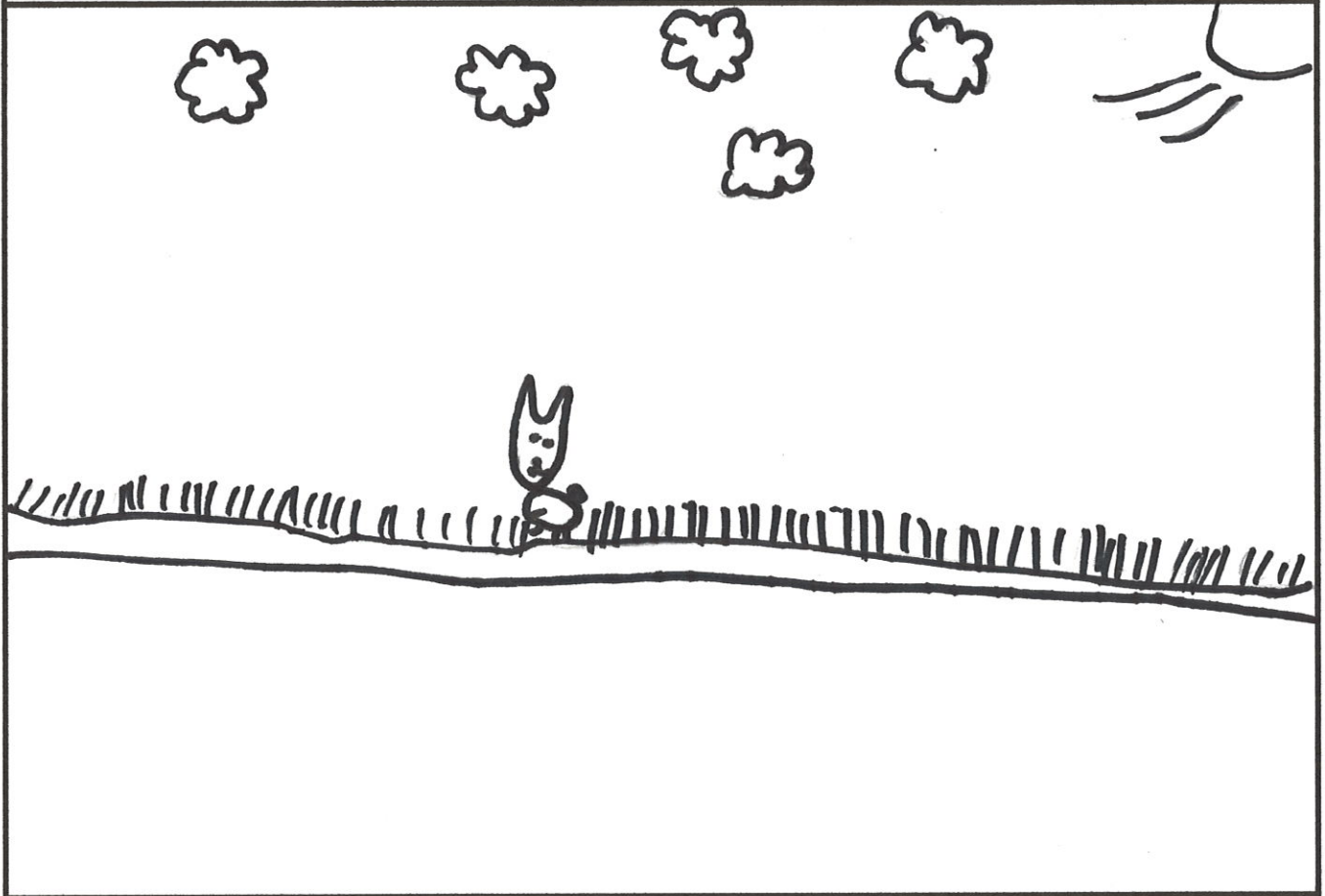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치타입니다. 치타는 고양이
중에 가장 크고, 사냥을 잘 합
니다. 치타의 무늬는 정말
멋져요.



매화반

이름: 김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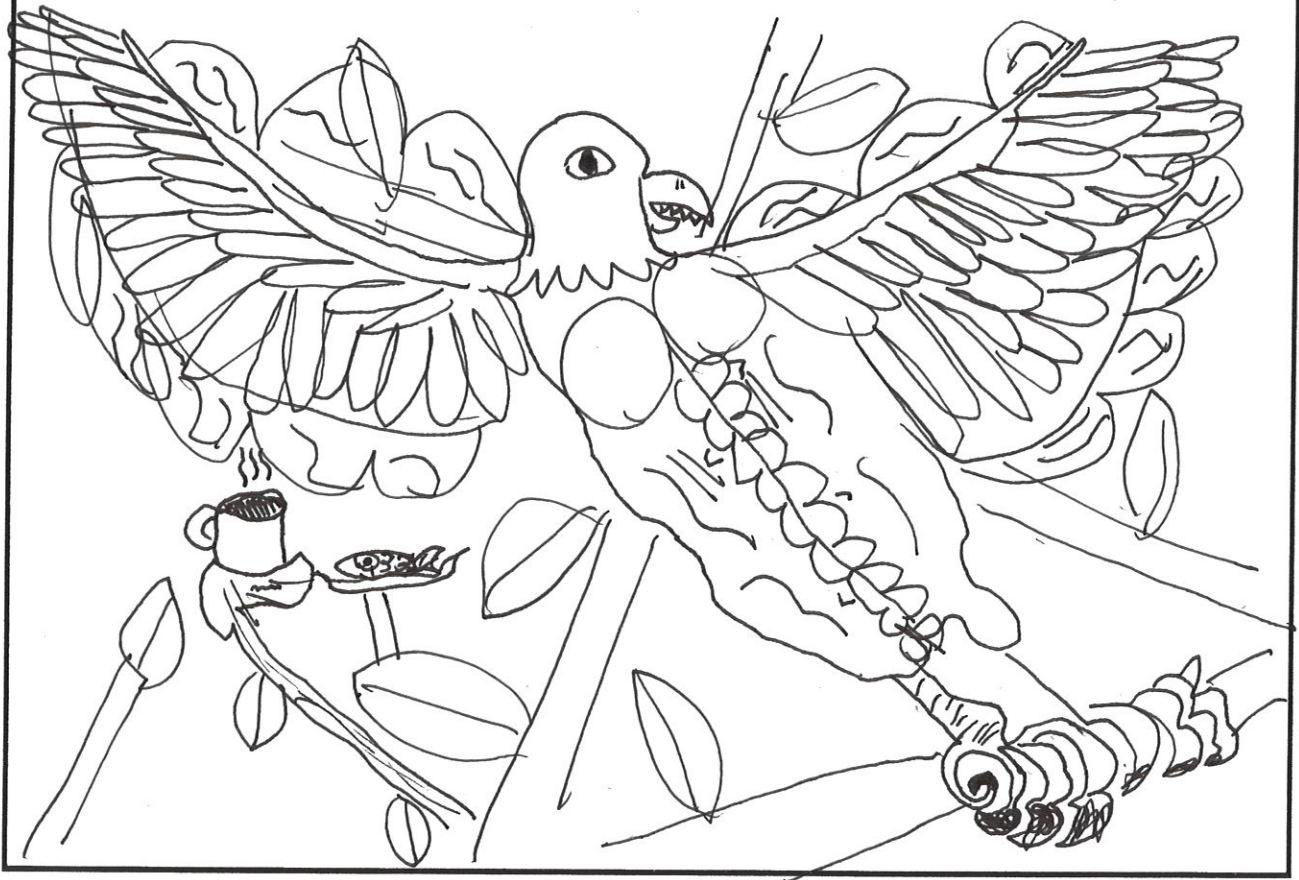


저는 토끼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토끼는 귀엽기 때문이에요.

저는 토끼 인형을 좋아해요.

토끼를 사랑해요!



저는 독수리를 좋아해요.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고기를 잡는것이 맛있어요. 날개도 화려해요.

가슴에 근육이 많고 튼튼한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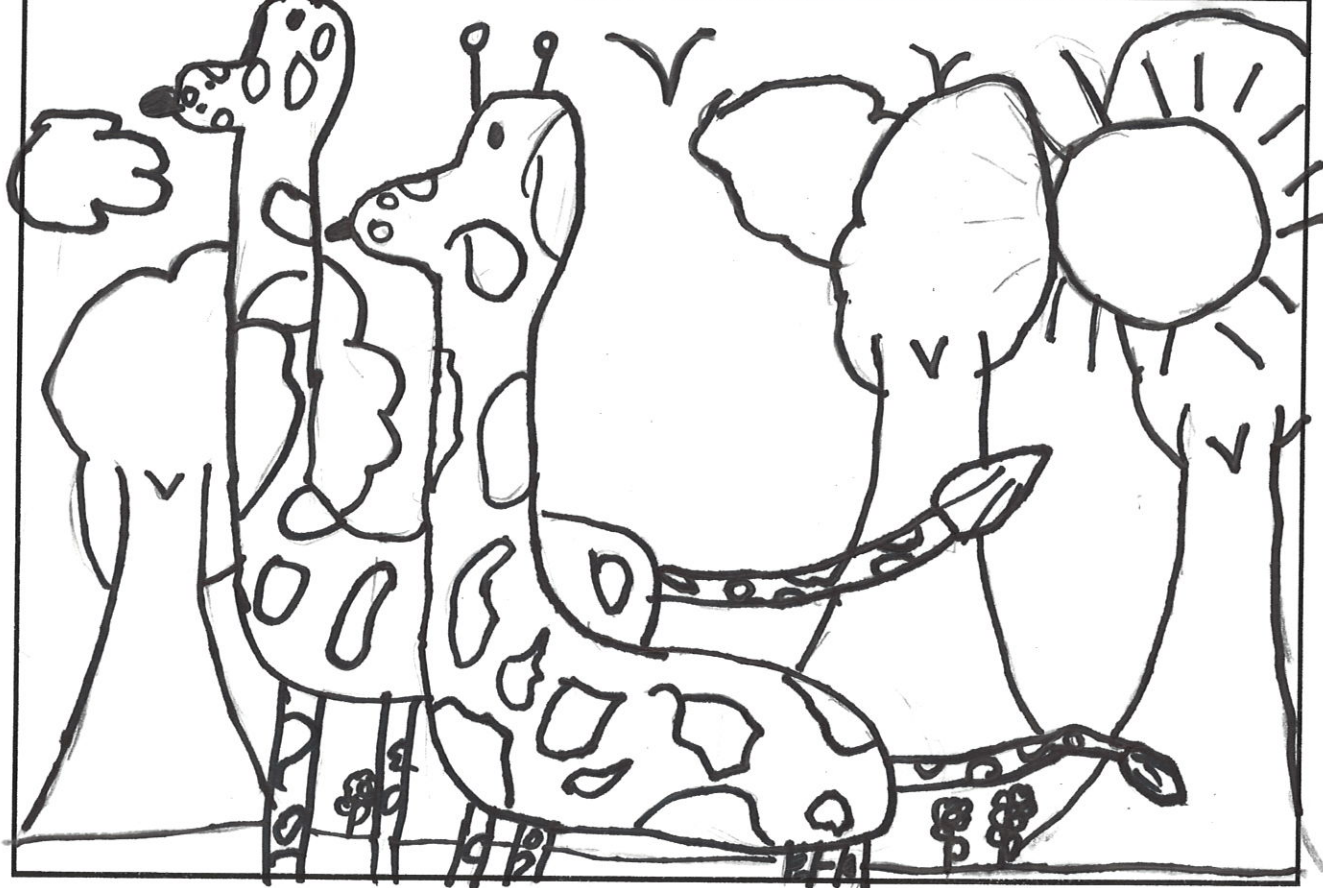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생선을 독수리도 좋아해요.

우리학교 마스코트 도 독수리 랍니다.



매화반

이름: 김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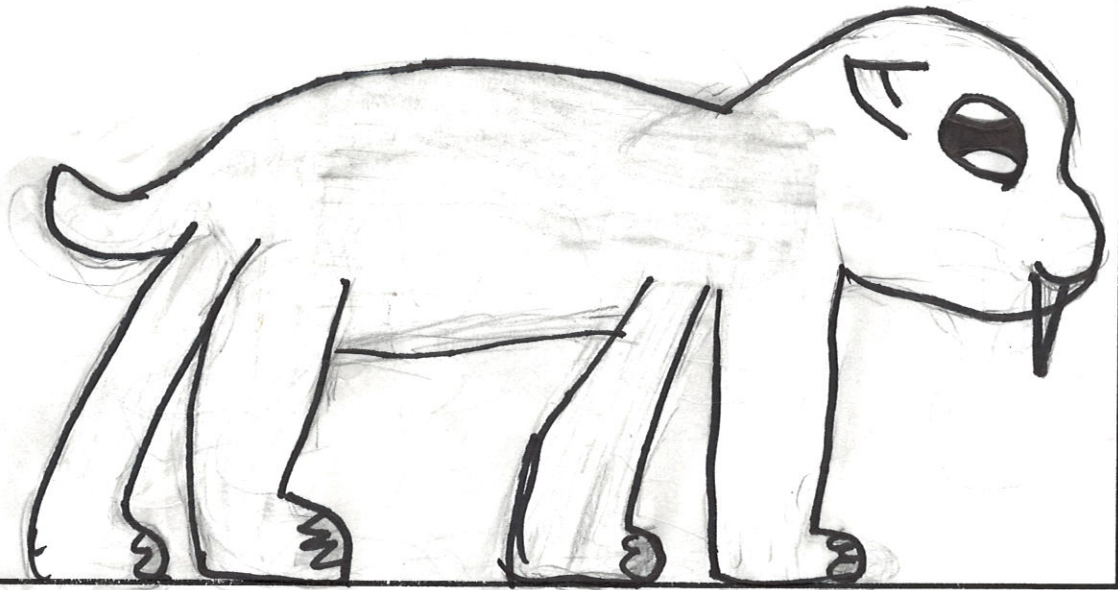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기린입니다. 왜냐하면
기린 색깔이 너무 예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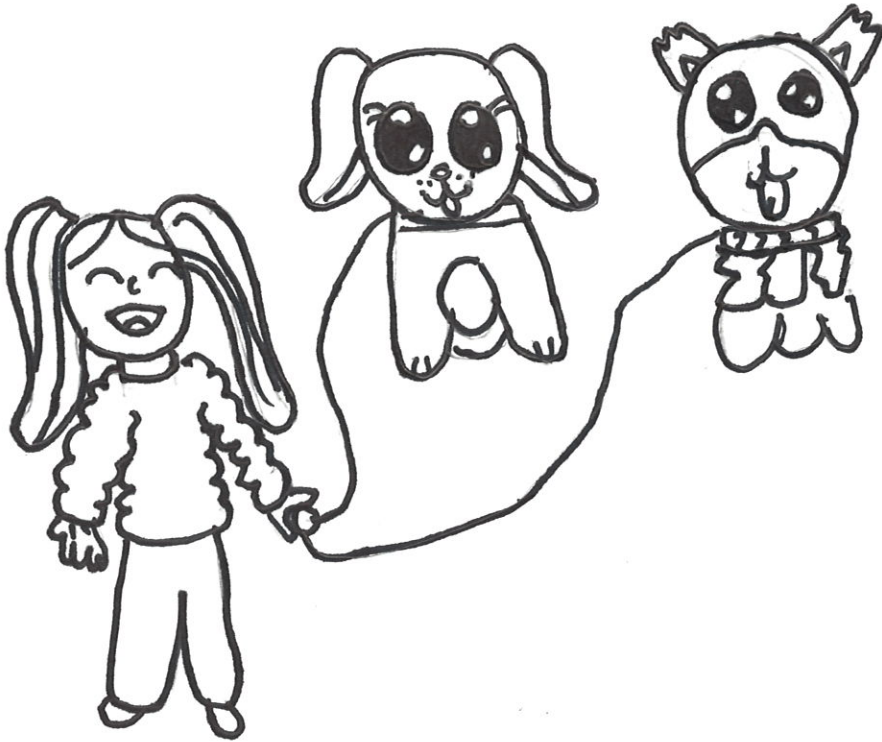
매화반

이름: 김혜나



나는 세이버투스 호랑이가 좋아요. 그 이유는,

이빨이 진짜 멋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강아지는 예쁜 강아지도 있고 귀여운

강아지도 있어요. 나는 예쁜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두마리를 기우고 싶어요.



매화반

이름: 서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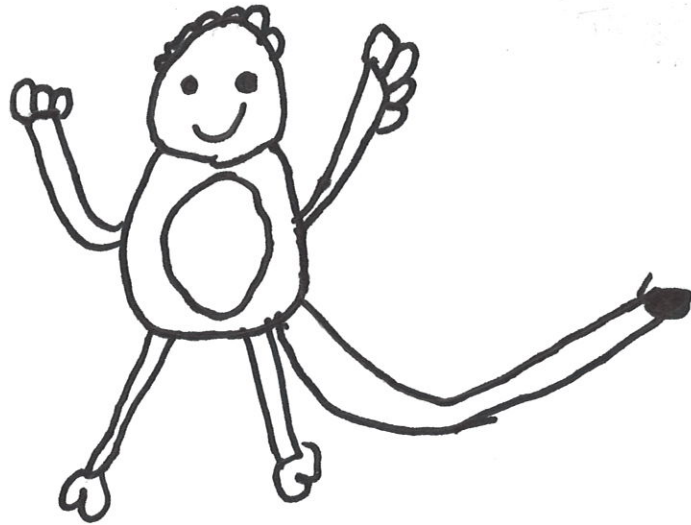
1. 펭귄은 종류가 많아요 (many kinds)

2. 펭귄은 알을 낳아요 (lay eggs)

3. 펭귄은 생선을 먹어요 (eat fish)

4. 펭귄은 추운 곳과 따뜻한 곳에 살아요

5. 펭귄은 귀여워요. (they are c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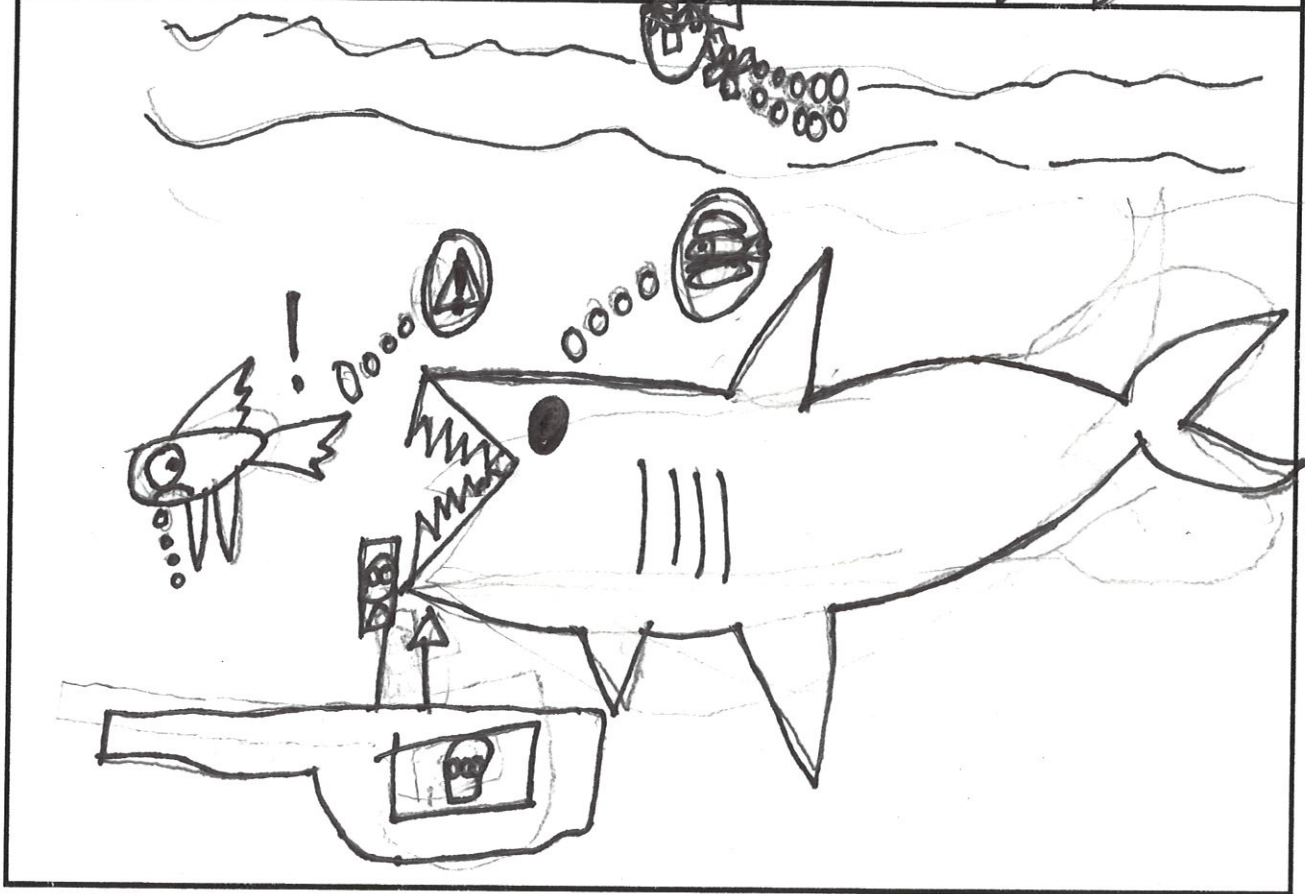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 원숭이
예요. 저는 원숭이가 나무
를 탈수 있어서 좋아요.

동물원에서 원숭이를 보고 싶어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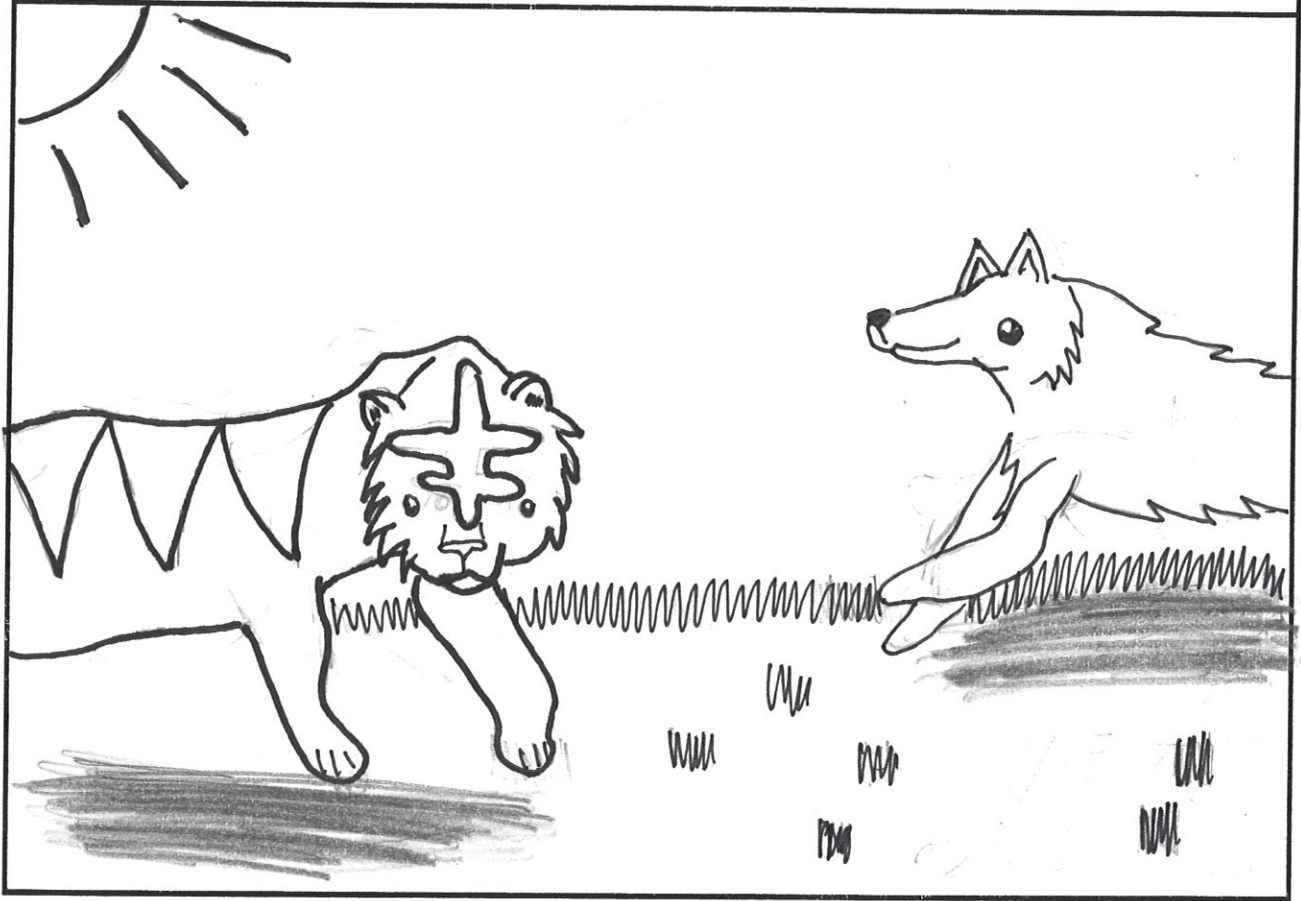


매화반

이름: 손하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상어
입니다. 왜냐하면 상어는 저처럼 물고기를
잘 먹습니다. 이 상어는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버거를 만들어 먹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호랑이 하고 늑대 입니다.

늑대를 왜 좋아하는지 알려 줄게요. 꼬리가 꼭신

꼭신 하게 생겼고, 애기일때 귀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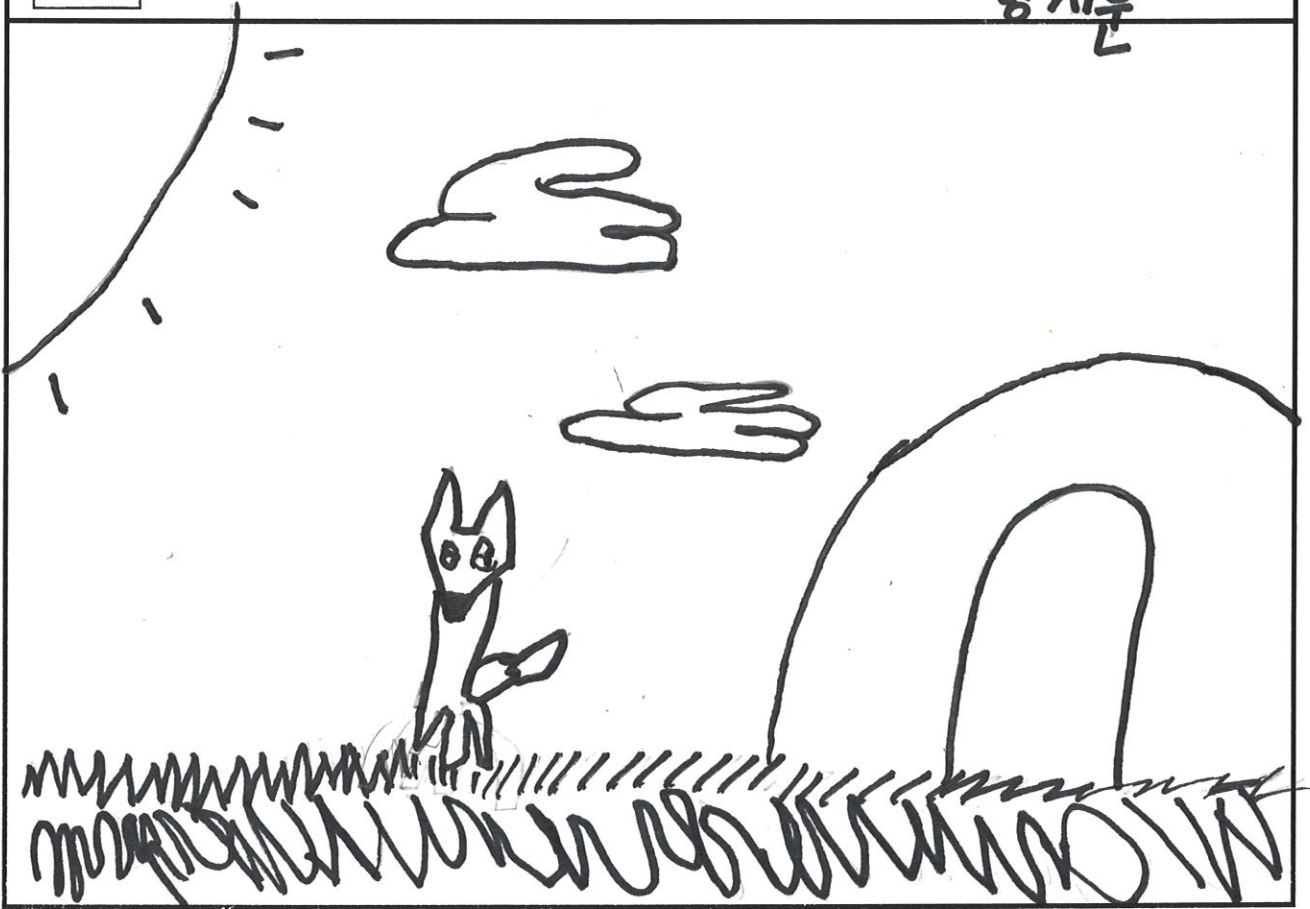
호랑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멋진 무늬와 이빨이

1번 조번조 해서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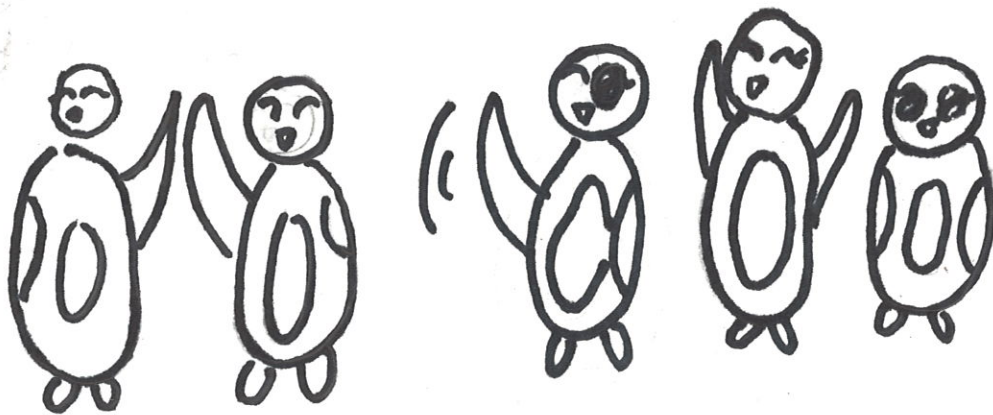


매화반

이름: 양지훈



저는 여우를 좋아해요. 여우는 제가
좋아하는 비단 게임에 나와요. 비단
게이에 나오는 여우는 호기심이 많고
영리해요. 저는 뽀뽀가 귀여워서 집에서
키우고 싶지만 아버지가 안된대요!



나는 펭귄이 좋아요. 왜냐하면
까만 털이 부드럽고 얼굴이 귀여
워서요. 펭귄이 뒹뚱 뒹뚱 걷는
것도 재미있어요. 오늘도
펭귄 인형 이랑 같이자요.



매화반

이름:

정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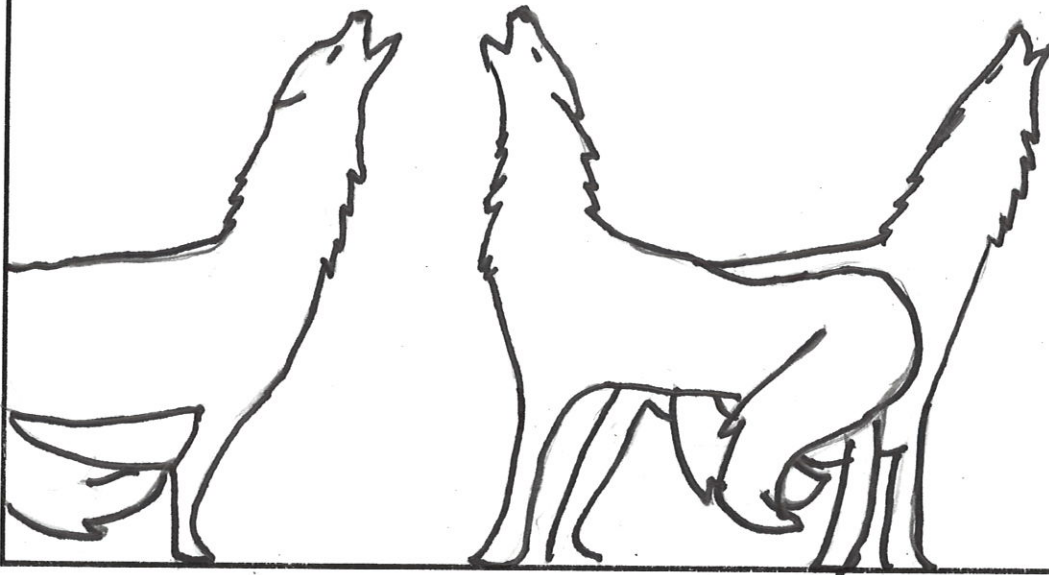


나는 호랑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이빨이 아주 강하고 날카로우어서
사냥을 잘해요. 또 수영도 잘해요. 호랑이는
왕처럼 힘이 있고 위엄이 있고 멋있어요.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자주 보고 싶어요.



매화반

이름: 최예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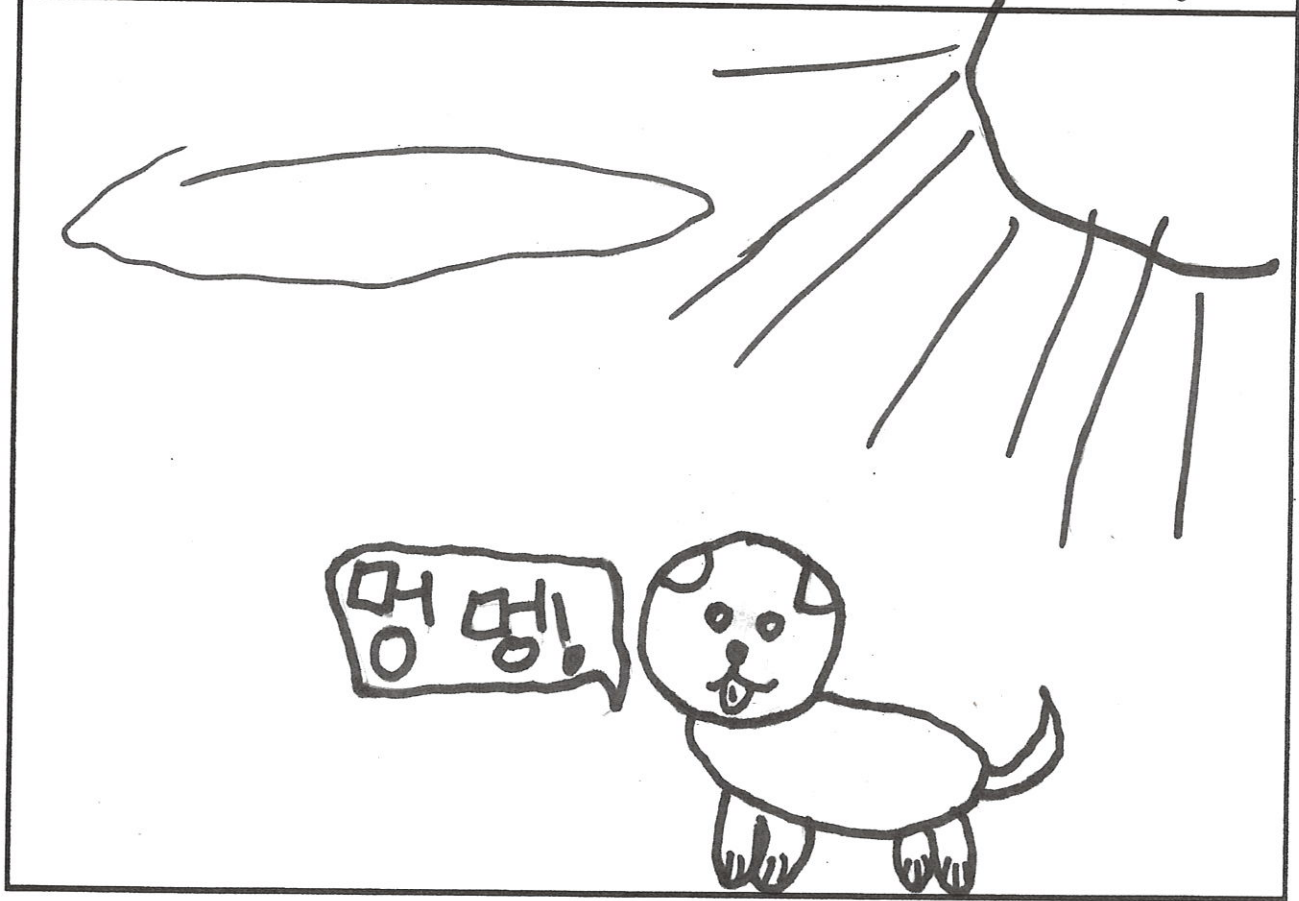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여우입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똑 똑 하고 예쁜
동물인 것 같아요.



매화반

이름: 한예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 입니다. 강아지는 앞을 볼 수

없거나 아픈 사람들을 도와

줍니다.

난초반

담임 교사 김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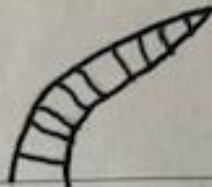




세종대학교 단조반

이름: 강예준

2020



1. 친구들과 밖에서 많이 놀기.
2. 동생이랑 사이 좋게 놀기.
3. 엄마한테 선물주기.
4. 사탕 그만먹기.
5. 책더 많이 읽기.
6.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기.



세중학교 난초반

이름: 민지홍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 볶음밥입니다.
오빠나 형이면 면이 매콤하면 맛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짜장 볶음밥 집 만들고 싶습니다.
아주 재미있을 거 같아요.



세종학교 단초반

이름: 박나연



나의 2020년 계획은 책을 만통이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어보지 않은 새 책
도 가지고 싶습니다.



세종학교 난초반

이름: 박다연



나의 2020 계획은 더 많이 여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행하면서
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을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종학교 난초반

이름: 서여원



나의 2020년 계획은 세계지도를 공부하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우리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더 알고 싶기 때문 입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50주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렵게지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세종학교 단조반

이름: 심유빈



내가 2020에 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내사촌, 가연이 를 보고 싶어요. 가연이는
세계살이예요. 가연이를 만나면 여행
를 가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태국을
가고 싶어요. 나랑 가연이랑 재미있게
지내면 좋겠어요.

지내면 좋겠어요.

세종학교 난초반

이름: 오지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봄입니다. 왜냐
하면 봄 날씨가 너무 덥지 않고, 너무 춥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리 예쁜 꽃도 많고,
새들과 나비도 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산책하는 것이 너무 좋
아요.



세종학교 난초반

공부

이름: 이동기

도그맨 책

2001500358x99
3000:50038x79



2020엔 공부를 더 많이 할거예요.
 그리고 책을 더 많이 읽을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책은 도그맨이예요.
 도그맨 책은 참 재미있어요.



세종학교 난초반

이름: 이주현



삼겹살



순두부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순두부찌개도 좋아합니다.
 김치찌개와 삼겹살을 같이
 먹으면 진짜 맛 있습니다.
 나는 한국 음식이 다 좋습니다.



세종학교 난초반

이름: 이준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이에요. 가을은 왜 좋아하냐면 단풍이
많이 어긋추지 않아서예요.



세종학교 난초반

이름: 정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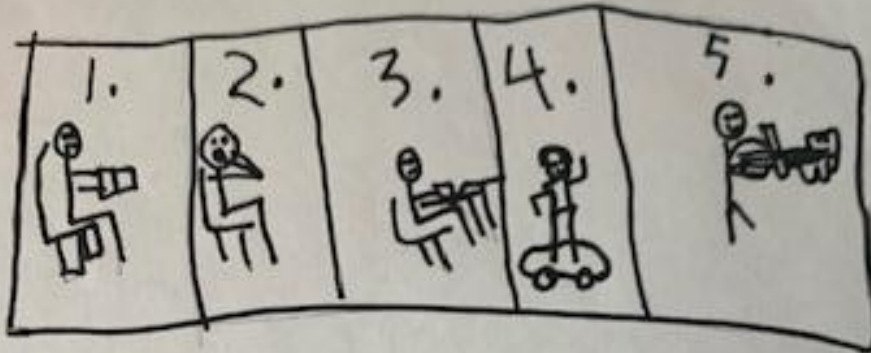


나는 공룡 치킴 치즈 케이크
 먹은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음식은 치즈 케이크입니다.
 나는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해요.

4당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 이에요. 라면은 맵고
국물이 맛있어요.



2020년 나의 계획은 5개 입니다.

1.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 읽어요.

2.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요.

3. 나의 책을 만들어요.

4. 스케이트보드를 배워요.

5. 바이올린을 배워요.

* 무궁화반 *

담임 : 김 희경



내가 해리포터 마법사가 된다면

무궁화반 김이안 (무궁화상)

내가 만약 해리포터 마법사가 된다면 멋있고 신기한 순간들이 많을 거 같아요. 첫째는 마법 지팡이로 멋있는 주문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에게 큰 벌을 주고 나서 올바른 규칙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나쁜 사람들도 없어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두번째로는 마법을 써서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비행기도 타지 않고 빨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요. 할머니가 만드신 오이지를 먹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호그와트성에 들어가서 마술 빗자루를 타고 퀴디치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맛있고 그림같은 만찬도 먹고 싶어요.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해리포터가 되는 상상을 해 봅니다.

내가 만약 기계를 만드는 과학자가 된다면

무궁화반 최성민 (아름다운상)

내가 만약 기계를 만드는 과학자가 된다면, 타임머신을 만들고 싶어요. 과거로 가면 원시인들에게 옷을 선물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시인들은 옷을 만들 수 없어서 옷을 선물할 거예요. 공룡 시대로 가면 공룡 등에 타고 모험을 하고 싶어요. 미래로 가면 신기한 물건을 현재로 가지고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만약에 무언가를 잘못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부를 잘해서 꼭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날 수 있다면...

무궁화반 박재연 (고운상)

내가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해 봤어요. 처음에는 아주 쇼킹하고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아주 신나고 여행을 가는 느낌일 거 같아요. 제고 날고 싶은 이유는 갈 곳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우주로 가고 싶어요. 우주에는 사람이 없으니 아주 평화로울 거예요. 그리고 토끼와 외계인이 진짜로 있는지 찾아볼 거예요. 우주에서 내려오면서 구름을 타고 다음 곳으로 갈 거예요. 그곳은 한국이에요. 비행기를 탈 때 너무 불편하고 재미있는 게 없어서 날아 갈 거예요. 자주 못 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잘 계시는지 궁금해요. 한국에 가면 과자도 먹고, 장난감도 사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아쿠아리움에서 상어 잡기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소방관이 된다면...

무궁화반 김민준 (예쁜상)

저는 멋진 소방관 아저씨가 되고 싶습니다. 소방관들은 위험한 일이 생길 때, 불이 났을 때 남들을 도와줘요. 소방관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해야 체력이 더 높아져요. 지난 할로윈 때 소방서에 가서 스파게티도 먹고 멋진 소방관들과 사진도 찍었어요. 소방관들은 참 멋진 사람이예요. 저도 꼭 소방관이 되어서 남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 새가 된다면....

무궁화반 김서경

내가 만약에 새가 된다면 하늘을 날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생활하는 모습도 보고 학교에서 배운 박물관도 구경하고 싶어요. 또 제주도에도 가보고 싶어요.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유명한 관광지도 보고 싶어요.

내가 만약 선생님이라면

무궁화반 김성원

내가 만약 선생님이라면 나는 내 학생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학생들이 착하고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모든 것들 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해줄 거예요. 학생들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내가 가르쳐 주는 새로운 것들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선생님이라면 내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항상 행복하게 가르칠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내가 꼭 도와줄 거예요. 나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상어가 된다면

무궁화반 김지안

내가 만약 상어가 된다면 바다를 헤엄쳐서 한국으로 갈 거예요. 한국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상어가 되면 돌고래 친구도 만들 거예요. 바닷속에 사는

아쿠아맨도 찾을 거예요. 나는 착한 상어가 될 거예요.

내가 만약 축구선수가 된다면....

무궁화반 노현준

나는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하며 친구와 달리는 것이 너무 신나요. 잔디는 푹신푹신하고 하늘은 예뻐요. 겨울에는 추워서 밖에서 축구를 못해서 슬퍼요. 축구 끝나고 동생이랑 노는 것도 즐거워요. 경기에 이기면 행복하고 지면 속상해요. 나는 골인했을 때 너무 기뻐요. 그래서 계속 축구를 잘 하도록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더 잘하고 싶어요.

내가 만약 자동차 엔지니어가 된다면...

무궁화반 박지오

내가 만약에 자동차 엔지니어가 된다면 나는 나는 차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약속 시간도 안 놓치고 교통체증도 없어질 거예요. 경찰차도 소방차도 병원차도 필요해요. 안전하게 낙하산도 필요해요. 나는 차도 전체가 날개가 아니면 허버크리프트가 필요해요. 구름 아래로 갈 때는 위험해서 센서가 필요해요. 낙하산이 없으면 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내가 물고기가 되면

무궁화반 안현진

내가 만약 물고기가 되면, 나는 다른 물고기랑 놀고 지렁이를 찾아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랑 경주하고 싶어요. 나는 산호초를 찾으러 가고 싶어요. 나는 매가오

리를 만난다면 같이 놀고 싶어요. 점보고래를 만나면 무서울 거 같아요. 그래서 사람 일 때 보고 싶어요. 상어를 만나면 너무 무서울 거 같아요. 물고기들은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상어를 피할 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도 빠르지만 상어가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연필이라면

무궁화반 오수지

내가 연필이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색칠을 할 거야. 내가 연필이라면 그리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하려고 하는 것이야. 또 다른 것은 글 쓰는 것이 나에게 가장 나쁜 것이야. 그러나 내가 사람이 아니고 연필이라면 아마 간단할 거야. 나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쓸 수 있어서 책을 만들거야. 샤프 연필은 연필심을 먹고 싸니까 샤프 연필이 되고 싶어.

내가 나무가 된다면

무궁화반 조병현

내가 만약 나무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주고 싶어요. 친구들이 힘들 때 나무 그늘 밑에서 편하게 실수 있는 나무가 될 거예요.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들의 집이 되어줄 수 있고, 동물들이 쉬어가는 곳도 되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되면 사람들이 살수 있는 집도 될 수 있어서 좋을 거 같아요. 집이 아니라도 나무가 되면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나는 나무가 되면 모두를 만나 줄 수 있는 따뜻한 나무가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게임기가 된다면

무궁화반 조민현

내가 만약에 게임기가 된다면 친구들과 다 같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즐겁게 매일 매일 생활할 수 있게 해 줄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나 너무 추운 날 바깥에서 놀 수 없을 때에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기가 될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게임기가 될 거예요.

장미반

윤희란 선생님



김한나, 이유리, 서유빈, 박연서, 정다은, 오지효, 김하원, 민건홍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술”

장미상
박연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미술입니다. 특히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술을 좋아하는 첫번째 이유는 내 생각대로 그릴 수 있고 내가 그리고 싶은 만큼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거나 기쁠 때면 해처럼 밝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합니다. 내 느낌이 종이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술을 좋아하는 두번째 이유는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그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그릴 수 있고 좋아하는 것도 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그리기는 재미있습니다. 여러가지 색깔들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색깔들이 섞이는 것이 참 좋습니다. 또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무엇이든지 재미있게 그릴 수 있어서 나는 미술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캠핑”

아름다운 상
민건홍

땅바닥에 누워서 자본 적이 있나요? 모닥불을 피우고 별을 본 적이 있나요? 밖에서 라면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까요? 그것은 바로 캠핑이에요. 캠핑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캠핑은 집을 떠나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고 친구를 사귀며 마음껏 노는 것입니다. 캠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의 하나는 모닥불을 피우는 것인데 집에서는 불을 피우면 혼나지만 캠핑장에서는 마음껏 피울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때 엄마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카드 놀이와 자전거 타기도 하고 함께 배를 타기도 했습니다. 또 캠핑장에 가면 친구도 많이 사귄 수 있습니다. 그냥 “같이 놀래?”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술래잡기, 숨바꼭질, 미니골프와 수영도 하면서 놀입니다. 그리고 캠핑장에서는 무엇을 먹어도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습니다. 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좋아합니다.

캠핑은 이 작은 것들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놀이들,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살면서 하기 힘든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나는 캠핑을 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을”

고운상
오지효

저는 가을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날씨가 좋고 나뭇잎 색깔이 예쁘고 맛있는 과일과 감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가을에는 날씨가 참 좋아요. 바람이 제 얼굴에 조금씩 불면서 제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요. 가을은 날씨가 시원해요. 그래서 긴팔옷이랑 긴바지만 입으면 돼요. 여름처럼 날씨가 뜨겁지 않고 겨울처럼 춥지 않아요.

가을에는 나뭇잎 색깔이 예뻐요. 10월에는 초록색 나뭇잎들의 색깔이 변해요. 저는 회색차를 타고 가면서 주황, 노랑, 빨강색 나뭇잎들을 볼 수 있어요. 예쁜 나뭇잎들을 보면 행복해져요. 제가 가을을 좋아하는 마지막 이유는 감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은 가을에만 팔아요. 제 생각에는 감이 제일 맛있는 한국 과일인 것 같아요. 이런 이유들때문에 저는 가을을 제일 좋아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예쁜상
김한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입니다. 우리집 근처에 있는 “Buddy’s Pizza”에서 파는 피자가 참 맛있습니니다. 그런데, 사서 먹는 피자도 맛있지만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피자는 더 맛있습니니다.

얼마 전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니다. 그 때 “Airtime”에서 맘껏 뛰어 놀다가 친구집에 가서 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니다. 먼저, 반죽을 손으로 밀었습니니다. 그 다음에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많이 뿌렸습니니다. 그리고 나서 베이컨, 파인애플, 햄을 올렸습니니다. 그것을 친구 엄마가 오븐에 구워 주셨습니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먹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먹어본 피자중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니다. 피자에 대한 글을 쓰니까 피자가 먹고 싶습니니다. 세종학교 수업이 끝나면 피자를 먹으러 가야겠습니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술”

서유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미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술 학원을 다녔습니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재미있고 색칠하는 것도 좋아합니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릴 때나 색칠을 할 때에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제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달전에 정물화를 그렸어요. 바구니안에 바나나, 사과, 레몬하고 오렌지를 먼저 연필로 스케치를 했어요. 바구니 밑에 천과 천의 주름을 그린 후 천, 과일, 그리고 바구니의 그림자를 그렸어요. 다음에는 물감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진짜 과일처럼 보여서 재미있었어요. 앞으로 제가 더 도전해 보고 싶은 그림들은 산, 바다, 그리고 해가 지는 모습, 풍경들입니다. 동물과 사람들도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싶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미술이 저의 특기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

김하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강아지예요. 내 강아지 이름은 엘리에요. 엘리는 아기 강아지예요. 태어난지 3개월이 됐어요. 엘리는 먹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사료도 잘 먹고 간식도 잘 먹고 당근도 잘 먹어요. 학교에서 집에 오면 엘리가 나를 반겨줘요. 나한테 뛰어 와서 꼬리도 흔들고 좋아해요. 엘리가 깨물면 아프고 목욕을 안하면 냄새도 나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요. 내가 다람쥐 인형을 던져주면 좋아해요. 계속 던져줘야 해요.

지금은 엄마가 엘리에게 밥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산책도 시켜줘요. 나중에는 내가 엘리에게 밥도 주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산책도 시켜줄 거예요. 같이 공놀이도 할 거예요. 나도 엘리를 잘 돌봐주고 싶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북이”

이유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거북이” 입니다. 처음에는 거북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를 키우다 보니 점점 더 귀여워졌습니다. 저는 활발하고 귀여운 거북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랑 아빠가 강아지는 키우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 보았더니 아빠가 강아지 대신에 거북이를 사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그러면, 빨리 거북이를 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북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북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정다운

많은 미국 사람들은 내가 중국 사람이라고 해요.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번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음악과 예능분야에서 뛰어난 감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는 BTS, 트와이스, 블랙핑크가 있어요. 한국 드라마는 미국, 유럽, 아시아와 많은 곳에서 아주 유명해요. 두번째 이유는 한글이에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국 음식은 건강에 좋고 아주 맛있어요. 예를 들면, 김밥, 잡채, 불고기와 김치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건강하면서 맛이 있어요.





담당교사 김진수



해반 담임교사 김진수

완연한 봄이다,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지금, 착하고 귀여운 우리 해 반을 7학년으로 올려 보내니 마음 한 켠에 허전하면서도 무언가 채워짐을 느낀다,

선생님의 미국생활이 아직 영글지 않은 시절에 해 반을 담임하여 많이 서툴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1주일, 2주일 시간이 흐르며 너희들의 개성과 특성을 조금씩 알게 되고 너희들을 보고싶어하는 내 자신을 느끼면서 세종학교 선생님이 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대에서 가치관과 성격이 대부분 정립된 성인들만 교육하다가 지금도 계속, 그리고 부족한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 더 멋진 모습을 형성할 너희들의 일상을 접하면서 작은 부분도 조심스러운 만큼 더 보람도 느껴던 거 같다,

모든 것을 가르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기에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보다 자주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교육하려 노력했지만 너희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꿈" 이라는 것인데 너희들이 선생님과 첫 수업시간에 말했던 그 꿈을 위해 더 자주 생각하고 더 많은 열정을 쏟기를 당부한다, 현재의 꿈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동일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삶을 집중한다면 당장은 그 꿈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이룰 수 있음을 선생님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본 우리 해 반 7명 모두는 다 그런 능력과 재능이 있음을 선생님은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선생님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한가지를 묻는다면,

그동안 참 고맙다,

많은 정을 쌓지는 못했지만 훗날 언제든 선생님이 생각나거든 연락주길 바란다,

맛있는 차라도 한잔 하자꾸나, 전화번호는 너희들을 위해 바꾸지 않으나,

30년 후 나의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해 상

윤수은

나의 미래의 딸에게,

사실은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도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질 거야. 나중에 네가 안 좋은 기억
들을 되돌아보면 왜 그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있어, 왜 그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알
수 있어, 그리고 그 일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 무슨 안 좋은 일
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나도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

예전에 나를 괴롭히던 아이가 있었어. 그 여자아이가 맨날 나와 내친구들을 놀리고
괴롭혔어. 어느 날 나는 그 아이가 놀이터에서 혼자서 슬프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
처음엔 사실 그 아이에게 말 걸고 싶지 않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아이의 이야기
를 들어 주었고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 그 아이는 더 이상 다른 아이들을 놀리
거나 괴롭히지 않았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
면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를 항상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걱정하지만, 사랑해



30년 후 나의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아름다운 상

하준형



제가 30년 후에 나의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첫번째, 엄마와 함께 친하게 지내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친하게 지내야 매일 엄마와 안 싸우고 사이가 좋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외톨이도 안되고 공부도 잘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더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집에만 있지 말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만 있으면 살도 찌고, 티비만 보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어야 지식도 많이 쌓이고 책을 많이 읽으므로 세상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번째, 핸드폰을 많이 잡고 있지 말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에 있는 전자파로 인해 눈도 나빠지고 머리도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일곱번째,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살도 안 찌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덟번째, 무언가를 할 때는 뭐든지 열심히 하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열심히 안 하면 기분도 안 좋고 힘도 들고 그리고 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덟가지가 제가 30년 후 나의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30년 후 나의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고운 상

임호균

30년 후 나의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 착하게 굴면 사람들도 너에게 나쁘게 굴려고 할거예요, 그리고 안 착하게 굴면 친구도 없고 인생을 혼자 살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착하게 굴면 친구도 있고 사람들에게 더 착하게 되고 인생이 행복하게 될 거예요,

슬픈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하게 해주고 슬프지 말라고 말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을 도와주면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30년후 나의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이야기예요,



30년 후 나의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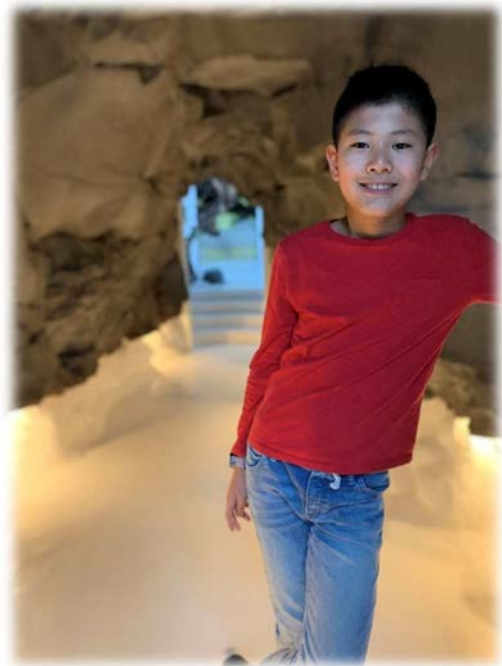
예쁜 상

최서진

우리 아이들아, 30년전에는 깨끗할수록 삶은 더 쉬웠단다.

깨끗하면 책상에서 책을 더 쉽게 꺼내고 서랍에서 옷을 더 쉽게 꺼내고 더 깨끗해 보여, 그리고 우리 반에서는 책상 정리가 잘 안되어 있으면 치울 때까지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거나 아니면 치울 때까지 집에 못 갔어.

30년 전에는 깨끗한 것이 아주 중요했단다. 그래서 우리 애들아, 학교랑 집에서 등, 모든 곳에서 정리를 하고 아주 아주 깨끗이 살아라. 안 깨끗하면 후회 할 거다. 그리고 기억해라, 깨끗하면 삶은 더 쉬워진다.



30년 후 나의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참 잘했어요

구하나

30년 후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정직하라고 말하고 싶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고 친절과 정직은 사람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내가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남을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 최선을 다하면 하루를 돌아볼 때 후회 없이 살 것이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남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도 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



30년 후 나의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참 잘했어요

김초연

나는 30년 후에 나의 아이에게 내 취미에 대하여 말할 거예요.

첫번째 취미는 책을 읽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책은 해리포터이고 제일 좋아하는 저자는 J.K. Rowling 이예요. 나는 자유시간에 책을 읽으면 엄마가 읽게 두시는데 밥 먹는 동안 책을 읽으면 엄마가 그만 보라고 혼내요. 내 아이들한테 자유시간에 책을 읽으면 괜찮은데 밥 먹으면서 책을 읽으면 혼날 거라고 말할 거예요.

두번째 취미는 그림을 그리기 예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요. 나는 만나 캐릭터를 많이 그려요. 자유시간 있으면 많은 그림을 그릴 거예요.

내 아이한테 잘 그림 그리면 좋겠다고 말할 거예요. 이게 30년후 나의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30년 후 나의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참 잘했어요

이준헌

사랑하는 나의 미래의 아이들에게

항상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기 바란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기 바란다,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해도 엄마 아빠는 항상 너희들을 사랑할거야,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야기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길 바란다,

항상 건강하고 너무 많이 먹지 말기를 바란다,

아빠가



솔반(7학년)

담임 교사: 오승용



일본여행

강솔대해



나는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일본에 가고 싶은 이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로 일본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습니다. 일본에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음식이 독특하게 발전된 이유는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서 맛보고 싶은 첫번째 음식은 초밥입니다. 초밥은 미국에서도 맛볼 수 있으나, 일본에서 전통초밥과 생선회를 맛보고 싶습니다. 저는 쫄깃쫄깃한 모찌떡과 따뜻한 우동도 맛보고 싶습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많은 양념을 사용하지 않고 재료의 맛을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환경에 맞춰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음식을 통해 그 나라 사람들의 성격과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재료의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양념의 맛을 극도로 자제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료와 양념을 함께 섞어서 먹는 비빔밥이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이라면, 재료가 섞이는 것을 싫어하는 일본인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일본에서 하고 싶은것은 신칸센(Bullet Train)을 타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아주 빠르답니다. 시속 150mph 부터 190mph까지 달릴수 있습니다. 신칸센 안에서 먹어보는 도시락도 맛있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유명한 장소들도 가보고 싶습니다. 도쿄 타워, 오사카 그리고 후지산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일본은 섬이라서 바다에도 가서 보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아기였을때 살았지만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일본에 가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 여행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나의 장래희망 강영준



나의 장래희망은 정치인이 되는 것 입니다. 내가 정치인이 되고 싶은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의롭고 평등한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나쁜 법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고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가 정치를 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치를 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먹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은 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가가 갖고 있는 권력 때문입니다. 이 권력은 국가를 미래를 좌우하는 갈림길이고, 난 권력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정치가를 하면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가가 내 장래 희망입니다.

나의 꿈 김단



제가 어른이 되면 저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배우가 된다면 저는 액션영화 배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유명한 배우가 되는 건 상관 없어요.
돈 많이 안받아도 상관 없어요.
저는 그냥 재미있게 배우를 하고 싶어요.
학교에서 저는 오줌 마려운 척도 잘하고 그리고 가짜로 하는 연기도 많이 하고 잘해요.
목소리 배우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배우를 할 거예요.
저는 활동적인 액션영화를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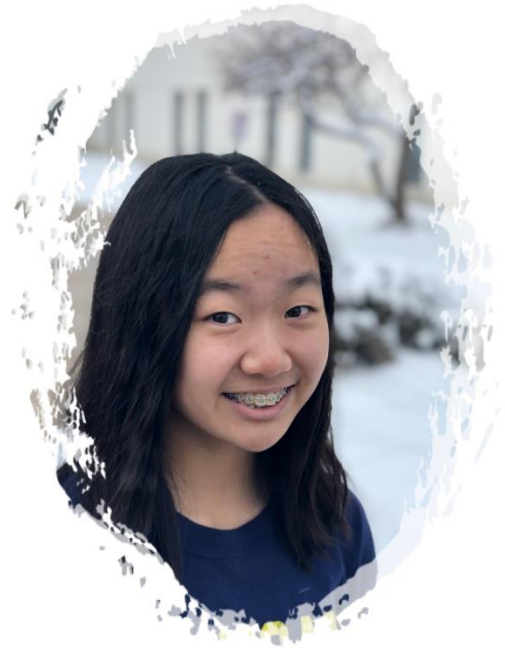
나의시즌 첫 경기

김래오



농구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을때 나는 너무 떨렸다. 농구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바닥은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빨리 내 신발에 뛰어들었고 후드티를 벗고 팀과 함께 워밍업을 했다. 시간이 금방 흘러서 이미 경기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우리는 줄을 서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점프볼을 할 준비를 했다.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고 공이 위로 올라갔다. 나는 공을 우리쪽 링으로 던졌고 우리팀이 공을 얻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치어리더가 응원하는 동안 우리는 좌우로 돌진했다. 그때 나는 빠르고 힘있게 링으로 공을 던져 올렸다. 공이 링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 하프 타임때 코치는 우리의 경기와 방어에 대해 이야기 했다. 마지막 남은 게임시간은 1분 30초 였다. 28대 29로 우리가 1점 지고 있었다. 우리 팀이 공을 얻어 우리 링 쪽으로 오고 있었고 나는 공이 나에게 오는 것을 천천히 보면서 빨리 움직였다. 2명이 나를 쫓고 있었고 나는 너무 압박감을 느꼈다. 나는 레이업을 하려고 했지만 못하고 빠르게 달려가서 오른손으로 공을 던져 올렸다. 공은 링 주위를 돌더니 링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 팀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다. 우리는 해냈고, 내가 넣은 마지막 골로 시즌 첫 경기에서 우승을 해서 더욱 기뻐다.

장래희망-미술가 김예원



제 장래희망은 미술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지금도 그림을 좋아합니다. 미술은 여러가지 다른 기술과 형식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여러 스타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채화 물감, 아크릴 물감, 오일 파스텔, 크레용, 색연필 등을 사용해서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서 미술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만화를 그립니다.매일 조금씩 더 재미있고 자세하게그립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는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그림을 그릴 때 정말 행복합니다. 영감을 받을 때 마다 제 그림은 더욱 멋있어 집니다. 그림에는 그 사람의 성격도 나타납니다.미술은 저를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걱정에서도 벗어나게 해 줍니다. 또한 제가 심심할 때 즐겁게 해주기도 합니다. 미술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미술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내친구 내동생

김이안



우리집 강아지 이름은 애기예요.우리강아지 애기는 누워있기와 치즈 먹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강아지를 예전에는 무서워 했어요.동생 지안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해서 분양을 받으러 갔는데,모든 강아지가 무서웠어요.그중에 제일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나한테 뛰어 올라 왔어요.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섭지 않았어요.그래서 애기를 집에 데려 왔어요.첫날에는 애기가 엄마 강아지를 보고 싶어서 계속 짹짹 했어요.하지만 둘째날부터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했는지 괜찮아 졌어요.애기는 지금도 5파운드 밖에 나가지 않지만 처음 우리 집에 왔을때는 더 작았어요.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밟을까봐 목에 방울을 달고 다녔어요.그렇게 작던 애기가 벌써 7살이 되었어요.이제는 나의 제일 친한 친구예요.매일 학교 갈때와 돌아올 때 애기가 나를 보고 싶어 짹어요.애기가 30년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상: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김찬영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테니스이다. 테니스는 상대선수와 공을 치는 라켓 스포츠이다. 테니스는 처음 12세기 프랑스 성직자가 즐기던 놀이였다고 한다. 그것이 영국으로 전파되어 왕실과 귀족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더 발전하여 Wimbleton 테니스가 생겨나고 테니스는 더 인기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나는 테니스를 9살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테니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다. 그중에 하나는 공을 잘 칠때 짜릿한 느낌이 참 좋다. 그뿐만 아니라 공을 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전혀 지루하지 않다. 그리고 공을 쫓아 많이 뛰어다니다 보면 팔과 다리 운동이 많이 된다. 테니스의 어려운 점은 실력이 늘어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테니스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부상도 적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는 로저 페더러이다. 로저 페더러는 재능이 많은 스위스 테니스 출신이다. 그는 역사상 좋은 기록을 세운 유명한 선수여서 존경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테니스의 황제라고 부른다.

로저 페더러의 경기를 보면 나도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렇게 되려면 실력과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테니스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이다.

고운상: 내가 좋아하는 동물

노현솔



나는 동물을 좋아해요.

그 중에서 북극곰이 가장 좋아요. 2학년 때 학교에서 북극곰이 발표 과제 였는데 그 때 북극곰에 반했어요. 너무 귀엽고 하얀털이 예뻐요. 동물원에서 북극곰을 보았었는데 보송보송 하얀털을 만져보고 싶었어요. 다음에는 아기곰도 볼 수 있겠죠? 같이 한 번 놀아보고 싶어요.

신기하게도 북극곰은 수영을 오래 잘한다고 해요. 훌륭한 수영 솜씨로 물개랑 물고기를 잘 잡아 먹어요. 그런데 환경오염 때문에 기후 변화로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서 북극곰의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대책을 찾는다고 해요. 빨리 찾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북극곰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이렇게 도우면 북극곰을 계속 볼 수 있겠죠? 네, 볼 수 있을거예요. 동물들만 아니고 우리도 플라스틱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같이 지구를 도와요!

세계 최고의 요리사 신서인



저는 유능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구요? 첫번째 이유는 저는 주방에서 엄마가 음식하실 때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고 저희 아빠가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게 즐거워요.

정말로 저를 항상 행복 하게 해줘요.

음식을 보고 만드는 일은 재미있고 좋아요.

음식을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 장래희망은 세계최고의 요리사가 되어서 저의 음식정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얼굴과 즐거움을 나에게 더 나은 동기를 부여하고 좋은 열심히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많은 공급 품을 알아 차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갖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상: 장래 희망 윤지환



안녕, 내 이름은 윤지환이야.

나는 커서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 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영화감독이 되고 싶은 이유는 영화에 다양한 장르가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라이온 킹은 애니메이션 이지만, 스타워즈는 실제 액션 영화다.

두 영화는 서로 다른 종류인데, 두 영화 다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훌륭한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 다양한 스토리를 써볼 계획이며, 영화도 만들면서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이다.

영화감독이 되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훌륭한 영화감독이 되기까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내 영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행복하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쁜 일일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나만의 스토리를 쓰고 있다.

장래 희망

이상엽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엽입니다. 저는 장래희망이 프로게이머 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잘 합니다. 저는 게임을 할때 사람들과 팀 플레이를 하면서 팀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팀원들을 잘 도와 줍니다. 힐러랑 디피에스를 조정합니다. 나중에 뉴욕에 있는 오버와치 프로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팀원들을 도와 주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연습을 같이 할 것입니다. 저는 오버와치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토너먼트에 참가해서 한국에도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오버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한국에 가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게임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쁜상 : 장래 희망 한준혁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내가 의사가 된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의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매년 약 203,880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로 인해 더 많은 아픈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먼저 의학과 관련된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려운 공부겠지만 의사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며 엄청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의 학교생활은 성취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의학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여 ALS와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개발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저는 제 진료실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도울지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로 그 사람들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며 희망입니다.

(달반)

담임 : 박혜인



제목 : 나의 장래 희망

달상 달반 이지원

나는 아직 장래 희망이 없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할 뿐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내게 앞으로 닥칠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여러 길로 열어놓고 싶다. 앞으로 조금 더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나에게 맞는 길이 있을 것이고, 난 그 길을 서서히, 하지만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찾아가고 싶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훌륭하다. 하지만 그렇게 한곳만 바라보고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과 기회들을 놓칠 수 있다. 나는 어릴 때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원하는 경험이든 원치 않는 경험이든 해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모든 경험들에는 항상 배울 점들이 있기 마련이다. 너무 자기 자신을 틀에 가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좋고 유익한 밑거름이 될 거라 믿는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요즘 더욱 더 나의 미래나 장래희망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나보다 경험을 더 많이 겪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참고하려 노력 중이다.

나의 성향으로 보았을 때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사람들의 심리나 범죄자들의 심리, 한국사나 세계사,

인류의 역사, 역사적인 인물들의 철학 같은 것들을 배워갈 때 가장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문학 뿐만 아니라, 수채화 일러스트나 패션 아이템들을 스타일링 할 때도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알아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하게 될 때 가장 행복하며 즐겁다.

나는 아직 장래희망이 없지만, 더 많은 일들을 겪을 수록 언젠가는 나의 길을 찾을 거라는 믿음은 확실하다. 내가 조금 더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것들을 접하게 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로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만 있다면 상관없다.

제목 : 나의 장래 희망

아름다운상 달반 김세희

여러분은 하늘의 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저희 집에는 큰 망원경이 있어서 우주, 별, 달을 비교적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그 질문의 답이 너무 궁금해서, 저의 장래 희망은 NASA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나사 엔지니어는 수학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는 수학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 방면에서 저는 나사 엔지니어가 되기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사 엔지니어가 되어서, 우주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과 우주에서 찍은 사진들을 같이 본다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우주 사진들을 같이 보면서 웃고, 감상하고, 연구하는 좋은 시간을 머리 속으로 상상해 봅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멋진 경험이니, 나사 엔지니어가 되면 멋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 엔지니어의 월급은 미국 평균보다 훨씬 많다고 해요.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사에서 일할 수 있는 분야는 과학자, 엔지니어, IT 전문가, 회계 작가, 기술자 등이 있어요. 나사에서 제일 중요한 직업은 우주 비행사죠. 그 중에서 저한테 딱 어울리는 직업은 나사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우주 비행사들은 좁은 공간에 들어가야 되고, 우주에서 산소가 없어서 산소 탱크를 써야 되고 우주선에서 불이 나면 우주선이 터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위험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갈수록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NASA에서 일하고 싶어해요. 가까이는 제 친한 친구 소라도 NASA에서 일하며 우주 비행사가 되는게 꿈이거든요. 친한 친구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공부뿐만 아니라 수영도 열심히 해서 여러 방면에서 유능한 NASA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저 알아요.

제목 : 한국 TV 프로그램 문화 고운상 달반 표진선

한국 TV 예능 프로그램이랑 드라마는 다 다양한 이야기로 세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들은 매주마다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을 재미있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은 매주마다 모여 퀴즈나 다른 활동적인 게임을 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소름 끼치는 로맨스 스토리와 액션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거의 다 17회~27회에 끝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이야기에 한국은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듭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 방송들을 리메이크 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액션 드라마 시그널은 너무 재미있어서 일본에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드라마 스카이 캐슬과 한국 예능 복면가왕을 리메이크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런닝맨은 다양한 게임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중국이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TV 프로그램들은 한국을 너무 뿌듯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목 : 나의 장래 희망

예쁜상 달반 임재균

나의 장래 희망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학교 생활을 더 잘하고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가족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공부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요.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고 잘 놀고 싶어요. 책을 지금보다 자주 읽고 학교에서 내용을 잘 듣고 싶어요. 집에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릴 거예요. 집 청소, 설거지, 빨래를 이제 도울 거예요. 이제 활동도 해볼 거예요. 동생이랑 안 싸우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을 거예요.

제목 : 저에게 한국이란

달반 오세빈

저는 한국을 무척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는 할 것도 많은데 저는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가 태어난 곳, 고향이기도 하지만 추억이 가득한 곳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았을 때 친척들과 무척 가깝게 살았습니다. 저는 저의 사촌 집에서 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또 저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따끈따끈한 밥 한 공기름 같이 먹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 되었지만, 지금은 그 밥 한 공기름 저의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나눠 먹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없어졌을 때 제일 소중한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친척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서 싫었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저는 친척들이 그리울 때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는 제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저의 마음에 뜻 깊고 의미 있는 곳입니다.

제목 : 나의 장래 희망

달반 정다명

저의 장래 희망은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shark tank' 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사업가들이 자기들의 사업을 더 크게 하려고 투자를 받으려는 프로그램입니다. 돈이 많고 성공적인 기업가들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스타트업 사업가들은 자기의 발명품을 설명해 주고 투자금을 협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어린아이한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사업가들이 자기만의 발명품을 팔고 그것으로 돈을 번다는 것이 너무 저한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부터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다는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만약 다른 사람한테 저의 장래 희망을 말해 주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다는 것은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닌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 보면 세계에는 자신의 꿈을 이룬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의 꿈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울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사업을 한다는 건 저를 흥분시킬 만큼 재미있는 일이고, 이 것이 제 미래의 직업이 된다면 저는 많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반

담임 박혜인

이 곳 미시간에도 봄이 찾아와 날씨가 조금은 포근해진 것이 느껴지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종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2학기를 아이들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조기 종강하게 된 것은 아쉽지만 우리 예쁜 달반 아이들이 수업에 잘 참여해 주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쉬고 싶은 마음에 힘이들텐데도 토요일 세종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웃으면서 함께 역사 수업, 김장 체험, 카드 만들기, 윷놀이 등을 했던 기억은 제게도 즐겁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신경 많이 써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다명이, 세희, 진선이, 재균이, 세빈이, 지원이 모두 세종 학교 수업 잘 들어줘서 고마워~ 선생님이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 모두 건강히 여름을 잘 보내고 9월에 세종 학교에서 웃으면서 만나자!!.



별 반

담임 : 최 수나 선생님



윤동주 시인의 '쉽게 씌여지는 시'를 읽고

김도희 (별 상)

“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 몰고, 시대 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 후의 나. ”

이 문장은 윤동주 시인의 시 “쉽게 씌여지는 시” 중의 한 문장입니다. 저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윤동주 시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씌여지는 시’ 낭송 중 이 문장이 가슴에 가장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희망으로 어둠을 현실로 상징하며 시를 더 의미있고 감미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 강점기였을 때 윤동주 시인은 일본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든 부끄러운 마음을 이 시에 담았습니다. 이 시에서는 자신과 함께 했던 동무들을 일제 탄압 속에서 잃어 버린 후 윤동주 시인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순수한 가치관이 흔들렸을 때 들었던 상실감과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국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받은 돈으로 일본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자신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조국의 현실에 비해 얼마나 쉽게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그는 “등불”이라는 희망을 “어둠”이라는 현실에 빌어 보며 더 나은 미래가 올 거라고 믿어 봅니다.

윤동주 시인은 조국의 현실과 자신의 시를 “악수”를 통해 화해시켜 자신의 신념을 더욱 더 굳건하게 다짐합니다. 이 시에는 조국의 현실과 윤동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오는 고민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이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솔직히 드러낸 것에 감명 받았습니다. 그는 조국의 고통을 이해하고 시를 통해 자신이 가야할 길과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이 시를 읽고 난 후 미국 유학을 와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나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불평 불만을 하는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이 문장은 영화 “동주”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저도 윤동주 시인처럼 자신을 바로 바라 보고, 부끄러운 마음을 알며, 다가 올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향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 나라가 있는 이유인 윤동주 시인을 포함한 독립 운동가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깨달음이 있는 ‘한국의 웹툰 문화’

정혜린 (아름다운 상)

제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는 웹툰입니다. 웹툰은 온라인으로 보는 만화입니다. 매일 매일 다양한 웹툰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무료로 업데이트 됩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많은 웹툰이 연재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네이버의 “내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일”은 웹툰 추천글에서 추천 받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기대했던 만큼 좋았습니다.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어 뜻이 깊은 웹툰이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웹툰입니다.

“내일”은 주인공 최준웅이 한남대교에서 자살 하려는 사람을 구하려다 같이 빠져 혼수 상태가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저승사자들은 자살을 막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 이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준웅을 도와줍니다. 원래 준웅의 운명에는 없었던 혼수 상태 3년을 줄여 주고, 거기다 평생 백수인 운명도 면접과 시험 슈퍼 패스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는 저승 사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수락한 준웅은 위기 관리팀의 저승 사자들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위기 관리팀은 최근 들어 늘어난 망자들의 순환을 망가트리는 자살을 막는 일을 합니다. 자살 하려던 사람들은 학교 폭력, 죄책감, 괴로움 등의 이유로 자살 하려고 합니다. 준웅과 저승 사자들은 자살 하려는 사람들을 찾아가 이유를 파악한 뒤에 위로나 해결책을 주어 자살을 막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내일”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승 사자들은 사람들의 자존감과 살고 싶은 의욕을 높여주는데, 독자들도 이 때 공감을 하며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저 또한 이 웹툰을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등장 인물들이 울면 함께 울고 악역들을 함께 미워합니다. 독자들도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웹툰이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웹툰은 소설이나 일반적인 글에 비해 읽거나 내용 전달이 쉽습니다. 비록 걸 모습은 가볍지만 들여다 보면 무거운 내용인 웹툰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웹툰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웹툰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웹툰을 좋아하고 챙겨볼 만큼 유명합니다. 이러한 높은 인기과 더불어 요즘에는 드라마와 미디어 콘텐츠로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로는 녹두전, 천리마 마트가 있으며, 또한 이태원 클라쓰도 예정작입니다.

내가 k-pop 을 즐기고 방탄 소년단을 좋아하는 이유

김 결 (고운상)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 요즘 한국의 k-pop, 특히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방탄을 어떻게 만났는지, 방탄을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방탄의 음악이 저를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해 쓰겠습니다.

저는 원래 음악을 별로 안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음악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3 년 전에 저희 엄마께서 저한테 뮤직 비디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뮤직 비디오가 바로 방탄의 "DNA"였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 더 들을 수록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부터 저는 유튜브에 가서 방탄의 모든 뮤직 비디오를 찾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이상했던 것은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왜 갑자기 방탄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방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음악 스타일과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저한테 딱 맞았습니다. 요즘 제가 방탄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음악 스타일보다 더 많습니다. 우선 방탄은 다른 아이돌 그룹들과는 달리 자신의 음악을 스스로 작사 작곡합니다. 그리고 방탄은 그냥 탑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힘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방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방탄을 많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방탄의 노래 가사와 음악이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제가 엄청 슬플 때나 힘들 때 방탄의 가사를 들으면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가사로 제 아픔을 듣는 것 같아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 저는 방탄이 온 길을 보면서 방탄 멤버들이 이 길을

오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생각하면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 길을 찾으면서 갑니다.
이것만으로 방탄이 저를 도왔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많이 배워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문화는 k-pop, 특히 방탄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방탄을 알게 되었는지,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음악이 저를 어떻게 도와줬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만약 방탄을 싫어하거나 방탄의 음악을 듣지 않은 분들은 이 글을 읽고 나서 방탄의 음악을 한 번이라도 꼭 듣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

강 솔푸른 (예쁜상)

여러분은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2015 년에 한국에 계신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한국 식당에서 파는 한국 음식과는 다른 종류의 맛있는 음식들이었어요. 그 길거리 음식들이 너무 맛있고 이 음식을 통해 한국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음식을 즐기며 다음과 같은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노점상의 긴 역사를 통해 한국 전통음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요. 노점상들의 형성 시기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그 역사의 시작은 조선 시대 이전에 마을 장터의 형태로 저소득층인 천민, 상민들의 경제활동의 근거지로 형성되기 시작되었어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조선시대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서 하층 계급을 도왔다고 합니다. 인스파이어 코리아에 의하면 음식 노점상은 한국전쟁 이후 난민 생존의 주요한 수단이기도 했다고 해요. 이것은 포장 마차와 함께 길거리 음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요.

둘째, 한국 길거리 음식의 다양성을 볼 수 있어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한국의 전통 음식과 전 세계의 패스트 푸드로 나누어져요. 서양 음식으로는 와플, 핫도그, 아이스크림과 같은 것들이 공급업자들에 의해 소개 되었고, 길거리에서 쉽게 맛볼 수 있어요. 중동 지역의 케밥 또한 중동 아시아 사람들에 의해 길거리 음식으로 소개 되었어요.

셋째, 길거리 음식은 다양한 풍미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에 좋아요. 대표적으로 한국 음식은 떡볶이와 같은 매운 음식이 많은데, 이 매운 맛은 생활 속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 가능하게 해줘요. 바쁜 도시 속에서의 스트레스를 이 매운 음식의 자극을 통해 해소하지요. 대부분의 길거리 음식은 미국의 음식들 처럼 단 맛과 짠 맛이 강하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으며 비교적 건강에 좋아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건강에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발효된 음식이 많다는 것이에요. 발효된 음식들은 발효 음식 만의 독특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넷째, 주문부터 음식이 제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회는 개인 사업자가 많아 경쟁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으며 음식의 맛 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야만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은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길거리 음식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높은 만족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이러한 길거리 음식은 푸드 트럭, 포장 마차 등이 있어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관광객이나 미국에 사는 친구들에게 반드시 소개 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 음식을 먹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꿈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의사 선생님

김 준기

저의 꿈은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사람들을 도와 드리고 싶어요. 제 친구 아버님께서도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을 볼 때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학교를 오랫동안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할 일을 잘 할 것입니다. 우선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돈도 많이 벌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며 저도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사람들을 돕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모든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

이진영

저의 꿈은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회사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요즘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착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미스터 비스트같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서 유명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아이들 한테도 항상 착하게 살라고 교육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말로만 착하게 살고 좋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착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존경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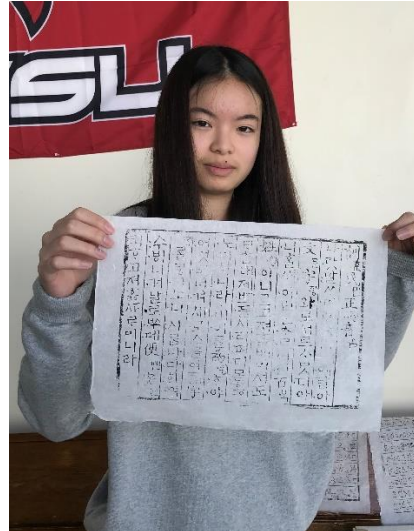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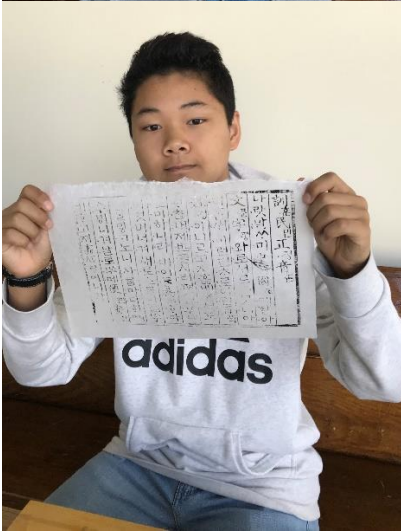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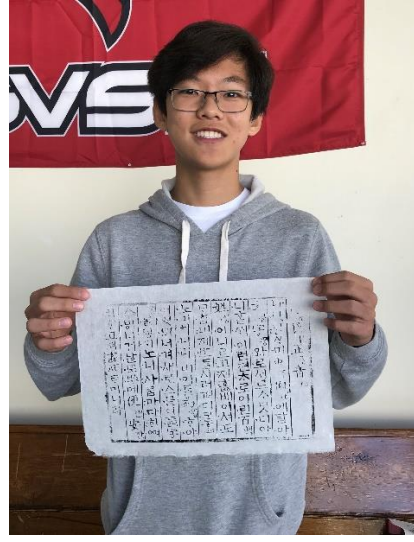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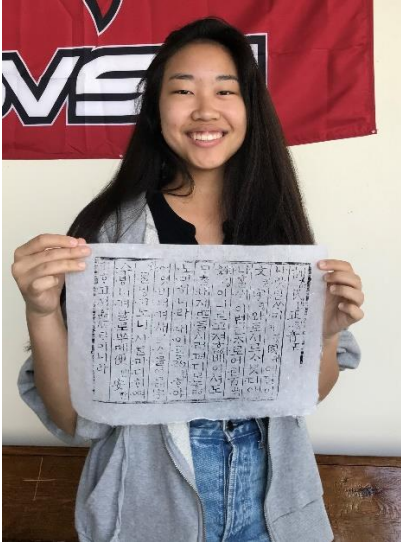
한수혁

한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은 2019년 12월 7일 번리 FC와의 경기에서 최고의 솔로 골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번리의 프리킥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팀의 18야드 박스 상단에서 공을 받고 놀라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1.6초 동안 91.3야드를 뛰었습니다. 상대팀 박스에서 뛰기 시작해서 여러 명의 수비 선수를 이겨내고 최고의 골을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여러 나라의 스포츠 뉴스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올해 AFC(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최고의 국제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지난 몇 년 동안 최고의 축구 선수 중의 한 명입니다.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을 키우던 손흥민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009년 독일로 가서 그의 첫 축구 팀인 함부르크 FC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2011-2012 및 2012-2013 시즌에서 신인 선수로 인정 받으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드에 30번 출전해서 5골을 기록했고 그 다음 해에는 34경기에 출전해서 12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는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경기를 보여주며 계속 발전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의 어린 나이로 다른 나라에 가서 적응하면서 힘들었지만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팀으로 이적해 가면서 당시 클럽의 최고 이적 수수료 1000만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팀에서 2년 동안 머물었지만 그 기간 동안 42경기에서 17골을 기록하고 2014-2015년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런 다음 2015년 8월에 현재 팀인 Tottenham Hotspur로 2,200만 유로를 받고 이적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손흥민은 Spurs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축구 선수로 큰 꿈을 가지고 어린 나이로 유럽의 축구 리그에 진출한 손흥민은 축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잘 적응했습니다. 또한 꾸준히 노력하여 더 큰 팀으로 이적하면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며 최고의 아시아 선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손흥민이 가졌던 꿈과 도전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의 꾸준한 노력을 존경합니다.



하늘반



담임 한규정

지난 9월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우리는 세종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주말 아침, 늦장을 부릴 만도 하지만 세종학교에 나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열심히 배우려는 하늘반 학생들의 열정을 보며 저 또한 더욱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수업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영어로 이야기할 때에는 평범한 미국 고등학생의 모습이지만 K-Pop 가수 이야기를 할 때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과 자랑스러운 세계 속의 한국을 배울 때 뿌듯해하던 모습. 또, 가슴 아픈 한국의 역사를 들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보면 뻗속까지 한국인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세종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혹은 각자가 꿈꾸던 길로 나아가며 일상에 바빠지겠지만, 지금처럼 한국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속의 한국인으로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뽐어내는 하늘반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종학교와 나의 14년

하늘반 김래아

저는 2006년 프리스쿨 때부터 세종학교에 다녔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빌딩이 세 번 바뀐 것도 보고, 많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결석도 하고 가끔 귀찮아서 숙제를 안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세종학교를 다니면서 저의 한국어 실력이 아주 많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한국어만 쓰시는 한국 부모님과 살다 보니 저는 가끔씩 이중 언어 능력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에 감탄을 하거나, 다른 한국 사람들이 “너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니?”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세종학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세종학교에서 배운 ‘가,나,다,라’가 앞으로 저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정말 귀한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던 세종학교는 저의 모든 삶의 단계를 함께한 변하지 않는 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친구들과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세종학교는 저에게는 편하고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렇듯이 저는 크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처럼 변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세종학교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생활에 긴장되고 무서운 마음에 걱정이 많았지만 새학기의 첫 번째 주가 지난 토요일에 늘 변하지 않는 세종학교는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세종학교에서 한국어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음악, 사물놀이, 난타, K-Rise와 친구 클럽을 통해 다양한 것을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와 친구들에게는 음악 시간이 제일 좋았고, 내년 예술제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하고 공연하던 추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친구들과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언니, 오빠들의 멋진 K-Rise 무대를 보면서 나도 빨리 커서 함께 무대에 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렸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3년차 K-Rise 회장이 되었습니다. 동아리 회장으로서 활동하며 스스로 동아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고, 친구들과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5학년 때에는 친구 클럽에서 숙제를 도움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 주던 봉사자 언니, 오빠들이 저에게는 롤모델이 되었고, 8학년이 되어 친구 클럽 봉사자로서 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보람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종학교를 다니며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었지만 저의 소중한 문화적 배경과 한국어 능력을 배운 것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추억까지 만들 수 있었던 보람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대학교에 가면서 이제 세종학교를 졸업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종학교가 저에게 남겨준 많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제 삶의 다음 장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동안 이끌어 주신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종학교에서 배운 소중한 경험들과 14년의 추억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종학교를 졸업하며

하늘반 김민주

저는 세종학교를 4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첫 등교 날, 처음 만나는 친구들에 어색하고 긴장된 나의 모습에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던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기억납니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대학에 가기도 하고, 지금 같은 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래 못 만난 친구들도 있지만 만날 때마다 항상 반갑고 헤어지기 싫은 친구들입니다. 미국의 일반 학교에서 흔히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닌, 나와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 준 세종학교는 나에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항상 반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학교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와 같은 모국어와 문화적 공감대를 가진 또래 친구들과 우정을 키울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세종학교에서는 학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친구들과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커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골든벨, 이야기 대회, 장구와 동요대회, 연극, K-POP 춤 등 한국어뿐만 아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로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 보면 세종학교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한국 친구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K-POP, 영화, 음식 등 한류 문화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또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인으로서의 나를 있게 해준 세종학교, 학창시절 많은 추억과 우정을 만들 수 있게 해준 세종학교에서의 경험은 나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자 값진 자산입니다.



“진짜” 한국인

하늘반 임재영

“아 그래, 네가 한국인인 걸 잊었어.”

“어? 무슨 말이야?”

“내 말은... 너는 한국 사람 같지 않았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와 통화를 하고 난 후, 내 친구가 내 마음을 뒤흔드는 말을 했다. 친구의 눈에는 내가 한국인이 아니었나 보다. 나의 첫 번째 본능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렇 리가 없어, 우리 부모님은 한국인이야.” 그러나 그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성향의 문제였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 질문은 지난 몇 년 동안 나를 괴롭혔다. 나는 학교에서 한국에서 온 아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 평상시 셔츠와 청바지와는 달리 옷을 아주 잘 입었다. 그들은 거의 한국말로만 친구들과 이야기했고 영어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들은 ‘트와이스’와 이들에 한 번씩 나오는 새로운 케이팝 아이돌의 노래를 일일이 들었다. 그들은 웹툰을 읽고 K-드라마를 보았고 학업에도 열심이었다. 그게 전부일까? 그게 한국인의 이미지라는 뜻이었을까? 만약 그것이 한국인을 의미한다면 나는 거의 완전한 미국인이었다. 나는 거의 모든 친구들과 영어로 말하는데, 필요할 때만 한국어를 사용했다. 나는 정말 가끔 부모님과 뉴스를 보는 것 외에는 한국 트렌드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 또, 한국 친구만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게 내가 한국사람이 아니게 보였나? 방탄소년단이나 루나의 노래를 듣지 않아서 한국 애들보다 덜 한국사람처럼 보인 거야? 나의 대답은 “아니오”라고 외치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이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전형적인 한국 청소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나는 스타일리시하지 않는 것도 괜찮

다. 나는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 친구들과 농담으로 즐겁게 소통할 수 있다. 나는 한국의 최신 문화 트렌드를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한국인의 정신을 가슴에 꼭 품고 살아가는 부정할 수 없는 한국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는 인내의 정신.

꿈찍할 정도로 낮은 확률 앞에서 희망을 갖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하고 그들 자신이 브랜드인 “한국”은 한국 문화의 다른 측면을 반영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해 자아를 버릴 수 없다. 미국 문화에서 성장한다고 해서 덜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두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될 뿐이다. 우리는 두 나라의 문화와 언어 사이의 가교가 된다. 우리는 단순한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무지개다. 그리고 마음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나를 특별하게 해 (Feel Special)

하늘반 심진희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케이팝을 좋아했다. 사실, 세종학교 예술제는 내가 처음으로 케이팝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여섯살 때, 무대에서 원더걸스의 ‘노바디’와 ‘텔미’를 춤 추던 언니들이 너무 멋있게 보였고, 그 후에 나는 원더걸스를 찾아보고 케이팝에 빠지게 되었다. 케이팝은 노래가 좋고 아이돌 춤과 패션은 나를 신나게 했다.

사실 나는 케이팝을 알기 전에 한국말을 잘 못했었다. 그런데 나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을 보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다. 한국어를 배우고 케이팝 노래 가사를 더 잘 이해하게 될수록 재미있었고 또, 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다. 케이팝 노래의 가사에 점점 더 집중하고 의미를 알게 되면서 케이팝은 그냥 듣기 좋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음악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행복하거나 슬플 때 케이팝 노래를 들으며 많은 힘을 받는다. 그리고 가사를 따라 부르며 누군가 나를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기도 한다.

케이팝 덕분에 내 인생은 많이 달라졌다. 케이팝이 없었다면 나는 한국 문화와 언어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케이팝으로 인해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다. 케이팝을 빼놓고는 나를 말할 수 없다. 나를 특별하게 하는 케이팝, 그래서 나는 케이팝이 좋다.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를 보고

하늘반 윤지윤

16년. 16년 동안 살아온 내 인생에 사랑에 빠졌던 두 번의 경험이 있다. 첫 번째는 BTS 콘서트에서 뷔 얼굴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사랑에 빠졌고, 두 번째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라는 한국 영화를 봤을 때였다. 이 영화는 2009년에 한국에서 개봉한 아주 슬픈 로맨스 이야기이다.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흐르는 그런 영화. 영화를 본 후에도 가슴 아픈 영화. 또,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영화이다.

고등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수영을 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인생을 포기

했을까?” 다들 이야기한다. 사랑이 부족해서, 도와줄 친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포기한 친구들에게 나는 이 영화를 보여주고 싶다. 이 영화에서 케이와 크림은 사랑하는 사이였다. 암에 걸린 케이는 크림을 위해 병을 숨겼고, 케이가 떠난 후 크림은 케이와 함께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 만약 케이와 크림이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그렇게 슬픈 이야기가 되었을까?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나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이 영화를 본 후 인생을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힘든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슬픈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나아가고 있다. 슬퍼도 행복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될 것이다. 슬픔보다 더 슬픈 일을 행복보다 더 행복한 이야기로 만들며 친구들을 응원할 것이다.



한국 영화 ‘족구왕’을 보고

하늘반 손유진

나는 ‘어벤저스’처럼 유명하고 내용이 복잡한 영화보다 비교적 짧은 힐링영화를 즐기는 편이다. 바쁘고 빠른 삶을 살다가 가끔씩 침대에서 이불 덮고 잔잔한 영화 하나를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온몸이 따뜻함으로 채워지는 기분이 너무 좋다. 어떤 분들은 이런 사소하고 스케일이 작은 영화는 볼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족구왕’ 같은 작은 영화도 어느 유명한 영화만큼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족구왕’의 주인공은 군대에서 갓 제대한 복학생 홍만섭이다. 만섭이는 족구 덕분에 군대 생활을 즐겁게 보낸 후 학교에 족구장이 없어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속상해했다. 하지만 그 속상함도 순간이었다. 만섭이는 학교에 다시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친구 창호와 함께 열정적으로 족구부를 홍보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만섭이는 족구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좋아서 흔들리지 않고 재밌게 연습했다. 그런 대학생활을 보내던 만섭이에게 짝사랑이 생겼다. 짝사랑 ‘안나’는 학교 모델이며 족구하는 남자들을 더럽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만섭이에게 비웃으며 말했지만 보통 사람과는 달리 만섭이는 민망해하지 않았다.

“남들이 싫어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숨기고 사는 것도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들은 안나는 걸으로는 만섭이를 또 무시하는 척하며 자리를 비웠지만, 속은 나랑 같은 반응이었다. 만섭이의 족구에 대한 열정에 감동받았다.

만섭이와 달리,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남들에게 투명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해야 할 공부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림 그릴 시간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림 실력도 많이 떨어졌고, 내 실력에 대한 자신감도 사라졌다. 누구에게도 내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고 누가 나에게 ‘너 그림 잘 그리지 않아?’라고 하면 머리 돌리며 아닌 척했다. 만섭이의 그 한마디가 내 자신을 숨긴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줬지만 또 나에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심어줬다. 그런 만섭이를 보며 나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그 행복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의견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안나뿐만 아니라 만섭이는 족구를 하고 속소로

돌아올 때마다 잔소리하는 선배가 있었다. 그 선배는 족구를 만섭이처럼 하루 종일 찰 정도로 좋아했지만 차가운 현실을 깨달은 후 족구대신 하루 종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선배였다. 만섭이를 보면 자신의 철없던 1, 2학년때의 모습 같아서 매일 만섭이에게 족구를 그만두라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는 만섭이에게 “넌 왜 족구 하나?”라고 물었다. 만섭이는 거창한 이유 없이 그냥 대답했다.

“재밌잖아요.”

나는 이 대사를 듣고 왓지 사이다를 마신 듯 속이 시원했다. 요즘 사람들은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바빠 뭔가를 즐길 시간도 없고, 일을 안 하는 시간은 무조건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런 것을 떠나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만섭이의 모습이 부럽고 상쾌했다. 그 선배처럼 만섭이를 보고 현실성 없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나는 요즘 사람들이 잠깐 현실을 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 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소중한 몇 시간이 인간과 기계에 차이라고 생각한다. (기계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은 재미를 안다는 사실) 그래서 난 그 선배의 현실적인 모습이 존경스럽지만 안타까웠다. 오히려 해맑은 만섭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더 인간적이었다.

그 후로 만섭이의 족구팀은 만섭, 창호, 그리고 미래라는 선배와 함께 시작되었고, 연습할 때마다 만나도 간간히 와서 도와줬다. 족구팀은 그렇게 점점 학교에 알려졌고, 다른 과 족구팀들과 경기를 했다. 여러 가지의 기적과 만섭이와 친구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다. 경기 후, 선배는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만섭이처럼 다시 족구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한편, 안나는 애초에 이미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서 할 수 없이 만

섭이를 거절하고 둘은 좋은 친구로 남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섭이는 족구를 여러 사람들과 즐길 수 있었다는 것으로 마냥 행복해 했다.

‘족구왕’을 본 후, 나도 만섭이처럼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확실함은 안 생겼지만, 그래도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다. 만섭이의 당당함과 열정은 나와 같은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도 이 영화를 보며 힐링되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시민이 만든 민주주의

하늘반 이연우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시위를 보고나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 원동력에 매료되었다. 보통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사람들은 독재적인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만 한국인들은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사용하여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2017년, 나는 전두환의 군정기간 동안 있었던 민주화 항쟁에 관한 두 편의 영화를 보게 되었다. 송강호 주연의 ‘택시운전사’는 평범한 택시 기사들의 눈을 통해 전두환 군 정권이 저지른 1980년 5월 광주 대학살의 끔찍한 사건을 묘사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지도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우리가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용기에 많이 놀랐다. 또, 영화 ‘1987’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작은 목소리를 더했던 대학생 박종철의 죽음에 일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이 영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무자비한 탄압과 억압에도 다치거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많은 대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평범한 노동자, 학생과 같은 시민들이 그들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서고 결국 이 모든 힘이 합쳐져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의 기틀을 만든 것에 매우 놀랐다. 이 영화를 본 후 깨달은 것은 '진정한 용기'에 관한 것이다. 힘들고 억압된 시대를 살면서 독재와 억압에 대한 저항은 삶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잔인한 고문과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과연 나는 이런 시대정신을 가졌을까 하는 부끄러움이 생긴다. 또, 이 영화에서는 한국인의 결의를 느낄 수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엔 군사정권을 전복시킬 수 없었지만 지속적인 민주화 시위를 통해 민주화를 찾을 때까지 계속 노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르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할 때, 한국인들은 12월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몇 주를 보냈고 마침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었다. 세계에는 시민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정치적 혼란을 겪는 많은 국가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독재와 부정부패는 매우 긴 시간동안 계속되고 있다. 이런 다른 나라의 예를 볼 때,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이어 나가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불의와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깨달음이 평화속에서 실현되는 나라, 나는 나의 뿌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두 가지 문화

하늘반 정다운

나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 자라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미국과 한국의 양쪽 문화에 동등하게 이루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기억하는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은 한국문화이다. 처음 했던 말도 한국말이었다고 한다. 나는 언제나 한국 사람들과 함께 했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세종학교와 성당 한국학교에 다녔었다. 또, 나는 다섯 살 때부터 한국 문화 중 하나인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부모님을 따라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자주 참석했었다. 나는 집에서도 미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 즐겨 먹으며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한국 음악을 들으면서 지낸다. 그래서인지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하지만 나는 미국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 사람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학교에 다니면서 매일 선생님, 친구들과 영어로 말하며 차를 타는 동안에도, TV를 볼 때도 영어로 보고 듣는다.

어느 한쪽 문화에 치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문화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종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지역 사회마다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현대 시대에는 온 인류가 함께 섞여서 사는 세상인 만큼 우리가 누구이고 어느 나라 사람 인지를 생각하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에 서로 적응해 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 문화를 미국 사람들에게 또, 미국 문화를 한국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다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색동반

담임 교사 박재향



제이미, 클로이, 임리아, 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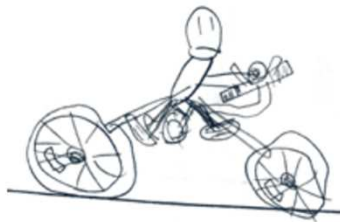


제이미 렉터



색동반

이름: 제이미



오늘 공원에 놀러 갔다
자전라고 시원한 바람을
아시니 너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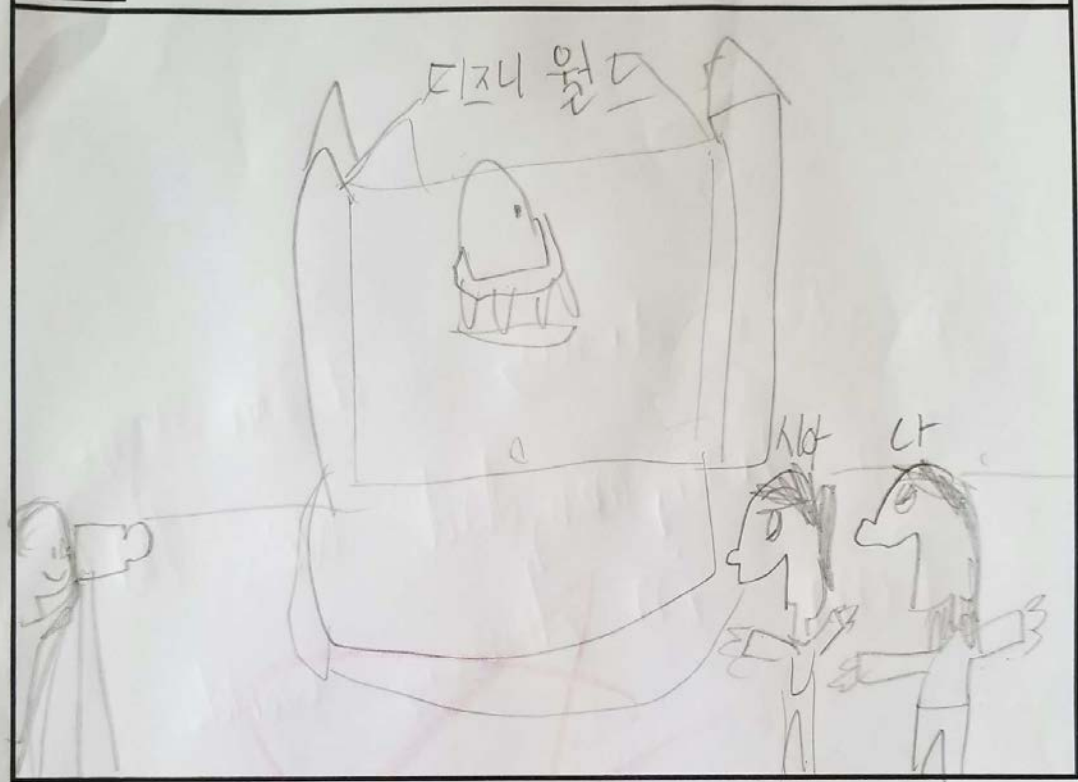


임리아



색동반

이름: 임리아



나는 엄마, 아빠, 언니와 함께
디즈니 월드 매직 킹덤에 갔다.
디즈니 월드 에서 재미있었다.



이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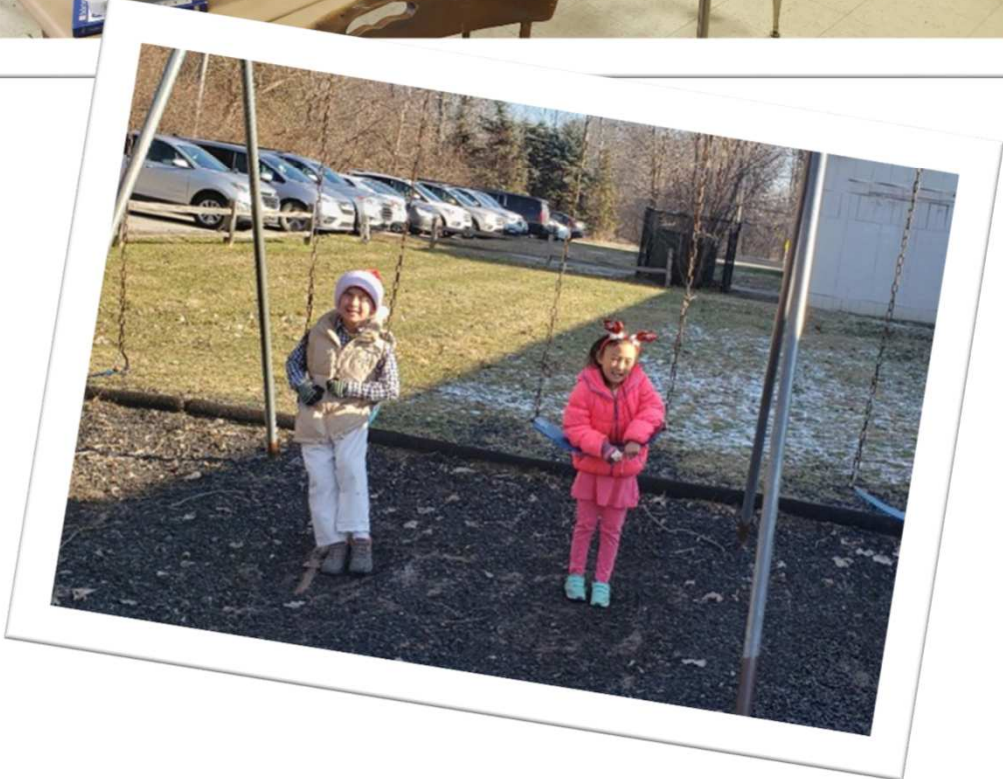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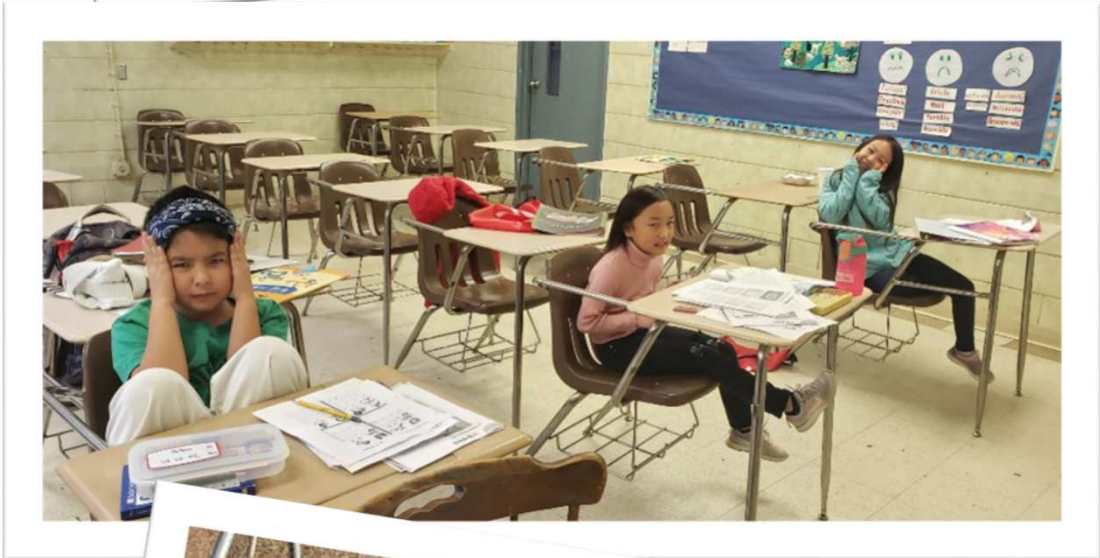


색동반

이름: 이 강



오늘 엄마랑 강이 케익을 만들었어요. 강이가 재료들을 넣고
엄마가 골고루 섞었습니다. 옆에 케익을 넣고 기다렸
어요. 구운 케익에 예쁘게 장식했어요.
케익이 참 맛있었어요.



신입반

담임 교사 최희순





세종학교 종달새반

수산나 호프



이재선 선생님



수산나의 한국 여행 이야기

작년 여름에 9년만에 한국에 드디어 갈수 있었습니다.

저는 12일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모두 4군데를 갔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그리고 제주도

저는 2010년도에 6주동안 이화대학교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번이 두번째 여행이었습니다.

2010년 갔었을때 이화 대학교는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신촌은 조금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촌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화장품 가게와 옷 가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고등학교 친구 한명하고 대학교 친구 한명을 만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궁전 네군데에 갔었습니다. 그 중에 경복궁이 제일 컷습니다.

봉은사에서 차를 마시며 사람들을 보는것이 서울 여행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서울 여행후에 버스로 대구에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이 재미있었습니다. 서울 밖의 한국도 너무 예뻐습니다.

서문시장에서 한복 만드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한복을 꼭 사고 싶습니다.

대구 여행후 기차로 부산에 갔습니다. 기차가 빨랐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때 잘못된 출구로 나가서 큰 가방을 가지고 많은 계단을 걸어야 했습니다.

바다와 산이 있는 부산은 멋있었습니다. 부산 스타일의 호떡도 맛있었습니다.

부산 여행후에는 비행기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는 한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초콜렛과 차 한잔을 하고 곰인형과 함께 해녀 박물관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미들이 제 가방을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렌트차가 시동이 안걸렸습니다.

무서운 시간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모든게 괜찮아졌습니다.

제 한국 여행은 대박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가고 싶습니다.



토끼반

미술 놀이

담당 교사 강덕현 선생님



소근육 활동을 이용한 그리기, 오리기, 붙이기,
색칠하기, 만들기 등등 여러가지
통합 미술 교육 활동..

미술 수업

나비반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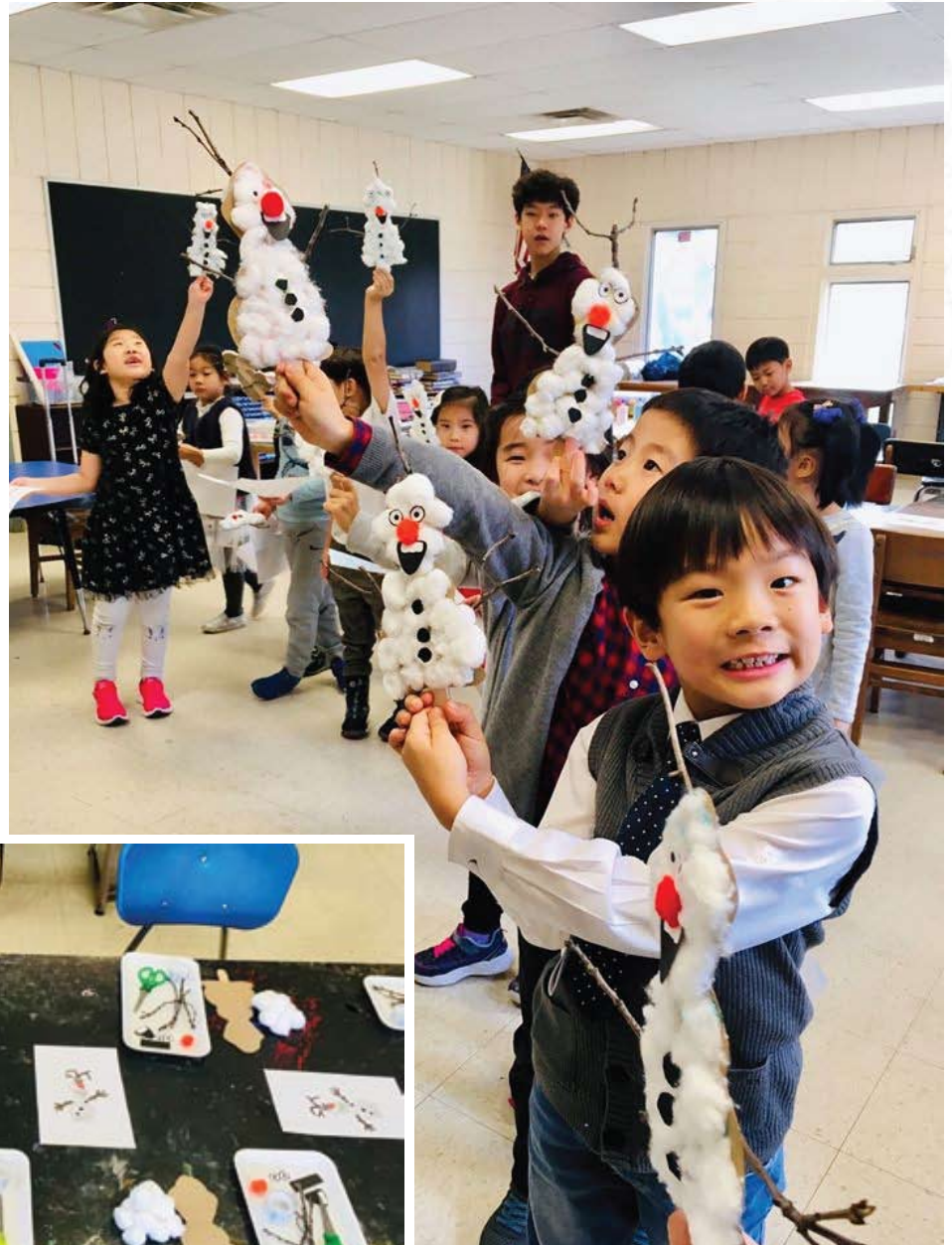


미니 쿠션 및
종이백을 이용한
시골쥐와 도시쥐

미술 수업

개나리반 1학년

올라프 만들기



미술 수업

매화반 2학년



종이백을 이용한
시골쥐 도시쥐 만들기

미술 수업

난초반 3학년



휴지심을 이용한 로켓트 만들기
그룹작업

미술 수업

무궁화반 4학년



몽따쥬 그리기

미술 수업

솔반 7학년



액자 데코 및 미니 베게 만들기

미술 수업

달반 8학년
별반 9학년



하회탈 그려보기



미술 수업

하늘반 11, 12학년



조개 그림,
부채화,
하회탈 그리기 등등...

미술 수업

신입반



미술 수업



색동반



기와집 만들기



학부모 참여 수업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Sae Jong Society of Detroit